



특집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

미리보기

오페라 <토스카>

인터뷰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벤게로프

트렌드

몰입형 콘텐츠의 시대

Opera



Baram's



Song



한국 동요의 서정으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감성 짙은 창작 오페라

2025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

2025.11.14.금 - 15.토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작곡 김주원 대본 황정은 지휘 김덕기 연출 조은비 무대 유다미 조명 배대두 영상 한지원 의상 이경은 안무 한재용 분장 이정수
출연 강바람 홍혜란 소프라노 달 최원휘 테너 엄마/바람 백재은 메조 소프라노 최범석 우경식 베이스/바라톤 연주 성남시립교향악단 · 성남시립합창단 ·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티켓 전석 20,000원 | 예매 NOLticket 1544-8117(연동 판매 채널 예스24, 클럽발코니),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 문의 031-783-8000

2025성남작가조명전Ⅲ

정 보 영

The Picture within Jeong Boyoung The Picture

그림 속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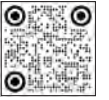
2025. 10. 24. FRI - 12. 21. SUN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성남큐브미술관 135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 매주 월요일 휴관 | 개관시간 10:00~18:00 | 문의 (031)783-8143-9 | www.museum.snart.or.kr

CONTENTS

2025 October & November
Vol.183



더 좋은 <아트뷰>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04 인트로

이달, 성남의 문화예술 소식

SPECIAL

10 미리보기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

12 아티스트 토크

<바람의 노래> 창작진과의 대화

20 깊이보기

작곡가 박태현을 기억하다

VIEW

26 미리보기 1

오페라 <토스카>

30 미리보기 2

막심 벤게로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32 미리보기 3

신창용 피아노 리사이틀

34 미리보기 4

연극 <빵야>

36 미리보기 5

앙트레 콘서트: 발레 <돈키호테>

38 미리보기 6

2025 성남작가조명전 III 정보영 <그림 속의 그림>

42 스케치

특별기획전 <BE CHILD - 아이처럼>

50 인터뷰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벤게로프

CULTURE +

58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애프터썬>

62 트렌드

몰입형 콘텐츠의 시대

SEONGNAM +

70 성남의 예술가

시각예술가 한광우

76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

성남아트센터, 20년의 기록

84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89 10·11월의 큐레이션

프로그램 가이드

95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96 성남아트센터 공간 탐구생활

온새미길

성남문화재단 격월간 <아트뷰>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 2025년 10+11월호

통권 183호(비매품) 2025년 10월 1일 발행 | 등록번호 성남, 마 00015 | 등록년월일 2005. 9. 12 | 간별 격월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이사장 신상진 | 발행인 윤정국 | 편집인 장동환
기획·편집 손세은 seson@snart.or.kr | 교열 이지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30 | 홈페이지 www.snart.or.kr | 편집·디자인 오니트(주) 02-337-3690 | 인쇄 더프레스



<아트뷰> 웹진 바로가기



SNART 20th Anniversary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인쇄물은 친환경 용지(량데뷰 내추럴, 미스틱, 그린라이트)와 친환경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달, 성남의 문화예술 소식		Seongnam: Culture and Arts News	
무대 빛낼 '성남의 별': 성남문화재단, 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오디션 진행  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오디션 현장		클래식 선율로 되살아난 하수처리장: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개관  9월 5일 진행된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개관식 성남시가 분당구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이 지난 9월 5일(금)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30여 년간 방치되었던 공간이 음악과 문화가 흐르는 시민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개관식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립합창단의 공연, 경과보고, 리모델링 과정을 담은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다. 신상진 시장은 "하수처리장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성남의 혁신과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성남물빛정원이 시민의 일상에서 사랑받는 문화예술 메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88㎡ 규모로 150석 공연장과 카페와 연습실, 악기 보관실 등을 갖췄다. 주변으로 두물길 산책로와 잔디마당, 옥상 하늘마당이 이어져 낮에는 휴식, 밤에는 야경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났다. 시는 9월 7일(일)과 8일(월)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 금난새가 지휘하는 개관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주 1회 이상의 스트링 오케스트라, 실내악 앙상블, 독주회 등 다채로운 무대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관람은 공연 3주 전까지 성남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회 추첨을 통해 관람자가 확정된다. 성남시는 이번 뮤직홀 개관을 시작으로 성남물빛정원을 '365일 열린 문화 정원'으로 발전시켜, 시민 누구나 쉽게 다가가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단계 마스터플랜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을 포함한 복합문화타운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문화재단이 2025 창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하는 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의 출연 배우 공개 오디션을 진행하고, '성남의 별'이 될 신인 및 잠재력 있는 중고신인 배우 10명을 선발했다. 지난 8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3일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연습실에서 열린 이번 오디션에는 총 375명이 지원해, 무려 3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에는 연출가 조성일을 비롯해 성남연극협회 관계자와 현역 배우들이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지원자들은 지정 대사 연기와 자유연기, 인터뷰로 이어진 치열한 경쟁을 펼쳐, 최종 10명의 배우가 무대에 오를 기회를 얻었다. 특히 성남 거주자와 성남 예술인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예술인을 위한 기회의 폭을 더욱 넓혔다. '아내'役に 최종 선발된 배우 김소연은 "배우이기 이전에 엄마로 살아오며 무대가 간절했던 순간, 가족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내어 오디션에 설 수 있었다"며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래서 더 반짝이는 별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더 반짝이는 우리의 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성남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창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정통 연극을 선보이는 한편, 예술인들에게는 무대를 향한 등용문이자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며 지역을 넘어 한국 연극계의 저변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0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3일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공연될 이번 작품은 삶의 위기를 겪는 인물들이 '노인'이라는 상징적 존재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다시 삶의 의지를 회복해 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방송과 영화에서 탄탄한 연기 내공을 쌓아 온 베테랑 배우 김명국이 '노인'역을 맡고,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더욱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개관 기념 음악회에서 금난새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골든챔버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이달, 성남의 문화예술 소식		Seongnam: Culture and Arts News	
성남의 음악 유망주 찾는다: 성남예총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개최		열린 무대, 새로운 기회: 2026년 성남아트센터 공연장 정기대관 신청	
 (사)한국예총 성남지회(회장 송위혁)가 주최하고 (사)한국음악협회 성남지부(지부장 장경환)가 주관하는 '제31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가 11월 1일(토)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부를 대상으로 피아노·관현악·성악(독창) 부문으로 진행되며, 전체 대상 1명과 각 부문 대상·최우수상·우수상·금상·은상·동상 등 총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와 상위 입상자에게는 별도의 오디션을 거쳐 11월 23일(일) 성남아트리움에서 열리는 <성남유망신예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 접수 마감은 10월 11일(토) 오후 5시까지이며, 대회 참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예총 홈페이지(www.cas.or.kr) 공지 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010-8178-0117		 성남문화재단이 2026년도 성남아트센터 공연장 정기대관 신청을 오는 10월 13일(월)까지 받는다. 대관 공간은 오페라하우스(1,808석), 콘서트홀(1,102석), 앙상블시어터(378석)이며 대관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단, 성남문화재단 자체 기획공연이나 성남시 주최 행사, 성남시립예술단 공연, 무대 점검 기간은 제외된다. 오페라하우스, 앙상블시어터는 장르 제한 없이 예술성 및 작품성, 전문성을 갖춘 작품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콘서트홀은 클래식 공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대관 승인은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결과는 10월 말까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신청은 성남아트센터 전자대관 홈페이지(www.snart.or.kr/rental)를 통해 온라인 대관 신청서와 공연 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783-8042(오페라하우스), 8047(콘서트홀), 8049(앙상블시어터)	
시민 배우들의 데뷔 무대: '드림 온 스테이지' 창작 뮤지컬 공연		예술교육의 미래를 묻다: 인문학적 사유 기반 연수 <생각하는 SSAEM> 개최	
 성남시민을 위한 재능 발굴 뮤지컬 캠프 '드림 온 스테이지' 2기 배우들이 3개월간의 워크숍 결과를 담아낸 창작 뮤지컬 <콩나물 버스 in Magic hour>를 선보인다. 지난 8월 만 19세 이상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통해 28명의 뮤지컬 배우 과정 참여자를 선발, 뮤지컬 기초부터 공연 실전까지 단계별 트레이닝을 거쳤다. 창작 뮤지컬 <콩나물 버스 in Magic hour>는 1970년대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노래로 희망을 키워 가는 버스 안내양 '순진'의 꿈과 사랑 이야기를 성남의 정서를 더해 새롭게 각색한 작품이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스토리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져 세대를 잇는 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11월 29일(토)과 30일(일) 양일간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문의: 031-783-8000		 성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 교육가를 위한 인문학적 사유 기반의 전문가 특강형 연수 프로그램 <생각하는 SSAEM>을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예술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기술·사회·교육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예술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AI·기술·ESG 등 최신의 사회 의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하며 예술교육의 본질과 실천 방향을 새롭게 모색한다. 10월 22일(수)에는 박종신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교수가 '예술과 기술의 상호 작용'을 주제로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창의성과 상상력에 대해 논의하고, 10월 31일(금)에는 김진택 포스트창의융합공학과 교수가 'ESG 전환, 새로운 삶의 질 디자인과 미학적 상상력'을 주제로 지속 가능성 시대에 예술교육이 품어야 할 상상력과 철학적 사유에 대해 강의한다. 참가비 무료. 문의: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예술터 031-240-9123  참여 신청 바로 가기	

SPECIAL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

10 미리보기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

12 아티스트 토크

<바람의 노래> 창작진과의 대화

20 깊이보기

작곡가 박태현을 기억하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Opera

Baram's Song





혼란과 상처로 얼룩진 한국사의 격동기에도 순수한 동심과 민족의 정서를 지켜 낸 노래가 있었다. 작곡가 박태현이 남긴 동요의 선율을 바탕으로 탄생한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생명과 희망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담아낸다.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 머물던 노래는 바람을 타고 되살아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떨림을 전한다. 마치 살랑이는 바람에 실려 온 잔잔한 노래처럼, 혹은 모두의 바람을 품은 간절한 노래처럼.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불러 보았을 친숙한 동요 선율이 민족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창작오페라로 다시 태어난다.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는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을 거쳐 근현대에 이르는 격동의 한국사 속에서 동요를 통해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고 민족의 정서와 감성을 노래해 온 작곡가 박태현¹⁹⁰⁷⁻¹⁹⁹³의 주요 작품을 모티프로 삼았다.

작곡가 박태현은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도쿄음악학교(현 도쿄음악대학)에서 첼로를 전공했다. 그는 평생을 동요 작곡에 헌신해 ‘코끼리 아저씨’ ‘산바람 강바람’ ‘태극기’ 등 200여 곡에 달하는 동요와 함께, ‘3.1절 노래’ ‘한글날 노래’ 등 국가 기념일 노래를 남겼다. 1980년대 초 성남에 정착해 87세를 일기로 작고할 때까지 많은 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그 음악적 공로를 인정받아 제21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제4회 KBS 동요대상¹⁹⁸⁹을 수상했으며, 작고 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²⁰⁰²에 추서됐다.

전쟁의 상흔 위에 피어나는 생명과 희망의 이야기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는 1950년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산골 마을 빈집에 사는 소녀 ‘강바람’과 인형 ‘달’이가 바람, 동물, 자연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생명의 이야기를 담는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소녀의 맑은 노랫소리는 바람을 타고 울려 퍼져 숨 쉴 곳을 잃어버린 존재들을 이끌며, 참혹한 현실 속에서 피어나는 자연과 생명, 우정과 희망을 노래한다.

작품에는 박태현의 동요 ‘산바람 강바람’ ‘깊은

밤에’ ‘자장가’ ‘다 같이 노래 부르자’ 등이 원곡 그대로 쓰이거나 주요 멜로디를 재창작해 활용된다. 작곡가 박태현 특유의 서정적이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동요 선율이 주요 장면에 녹아들어 극의 정서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차세대 창작진과 지휘 명장의 조화

이번 무대는 현재 오페라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창작진과 지휘 명장이 함께 이끌어 간다. 음악은 가곡과 합창, 창작오페라 분야에서 다채로운 작품 활동을 해 온 작곡가 김주원이 맡아, 박태현의 동요 선율에 현대적 음악어법을 결합해 새로운 음악 세계를 펼칠 예정이다. 대본은 연극·오페라·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며 섬세한 문체와 날카로운 주제 의식으로 주목받아 온 극작가 황정은이 집필했다.

지휘는 50여 편의 오페라 작품을 이끌며 한국 오페라 발전에 헌신해 온 김덕기 지휘자가 맡고, 연출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현대적 시각과 창의적 해석으로 주목받아 온 연출가 조은비가 참여한다.

또한 소프라노 홍혜란, 테너 최원휘,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베이스바리톤 우경식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성악가들과 성남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한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성남시립 예술단체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

일시 11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15일(토) 오후 3시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문의 031-783-8000

<바람의 노래> 창작진과의 대화

암울한 시대에 더욱 빛나는 '동심'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청량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이 가사는 작곡가 박태현의 동요 ‘산바람 강바람’의 첫 구절이다. 박태현 작곡가는 ‘코끼리 아저씨’ ‘누가 누가 잠자나’ ‘태극기’ 등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불러 보았을 친숙한 동요를 작곡한 인물이다. 그는 200여 편의 동요를 남겼을 뿐 아니라, ‘3.1절 노래’ ‘한글날 노래’ 등 애국심을 북돋우는 기념곡도 작곡했다. 둘째 형 박태은이 이완용 저격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 순국한 일이 계기가 되어, 그는 애국심을 북돋우고 민족정신을 지키려는 활동에 힘써 왔다. 박태현의 동요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고 조선의 어린이에게 민족정신을 심어 주기 위한 항일 운동의 일환이었다. 맑고 순수한 가사와 아름다운 선율의 동요가 암울한 시대에 많이 창작되고 널리 불린 것도 그 때문이다.

글 박병성 공연 칼럼니스트

작곡가 박태현의 노래를 모티프로 한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는 일제 강점기에 동요가 활발히 창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선생이 동요를 통해 민족의 정서와 감성을 전하려 했던 의도를 반영해, 작품은 개인의 전기를 단순히 재현하기보다 동화적 상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이야기로 풀어 간다.

음악은 차세대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김주원이 맡았다. 그는 현대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언어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온 작곡가로 특히 성악 작품 작곡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극작

은 황정은 작가가 맡았다. 그는 글과 무대를 아우르는 창작자로서, 다양한 연극과 음악극에서 섬세한 문체와 동시대적 주제 의식을 담아내고 있다. 김주원과 황정은은 이미 창작오페라 <사막 속의 흰개미> <레테>를 통해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연출은 조은비가 담당한다. 수많은 정통 오페라와 창작오페라를 통해 현대적인 시각과 창의적인 해석을 보여 준 조은비는 이번 <바람의 노래>에서 자신의 장기를 한껏 발휘한다. 공연에 앞서 김주원 작곡가, 황정은 작가, 조은비 연출가에게서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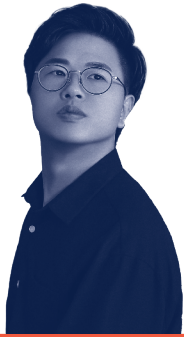
Artist

작곡가 김주원

작가 황정은

연출가 조은비

Talk



원곡 동요의 오마주와 창작곡의 조화 작곡가 김주원

제26회 이탈리아 발티도네 국제 콩쿠르 현대음악 작곡 부문 1위, 제57회 동아 음악 콩쿠르 서양음악 작곡 부문 1위, 제45회 중앙 음악 콩쿠르 작곡 부문 2위 등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작곡가로 가곡과 합창, 창작오페라 분야에서 다채로운 작품 활동 중이다. 김해문화재단 창작오페라 <허왕후>, 대전 예술의전당 및 지역 대학 공동제작 오페라 <레테> 등에 참여했다.

대본을 처음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작가의 의도를 관객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왜 암울한 시대에 동요가 꽃피는가’라는 질문을 음악적으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는 전쟁고아 강바람의 일주일을 그린 작품으로, 작곡가 박태현 선생님의 노래를 소재로 하지만 단순히 인생을 나열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대본을 보며 어떤 음악적 상상력이 떠올랐지요.

대본의 메시지와 소재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바람의 노래>는 전쟁, 어린이, 동요라는 상반된 소재들이 얹혀 있어 음악적으로 형상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장면을 열게 혹은 짙게 스케치하듯 음악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주인공 강바람과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라이트모티프로 박태현 선생님의 동요 ‘산바람 강바람’의 선율을 떠올리게 됐고, 조성 음악을 기반으로 현대적 리

듬과 화성을 더해 전개를 구상했습니다. 결국 음악적 상상력은 과거와 현재에 작곡가가 경험한 삶의 궤적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본의 상황에 맞는 화성과 형식을 찾는 과정 자체가 곧 작곡가의 경험에 기반한 상상의 과정이었습니다.

동요를 모티프로 하는 작품이라 기존의 오페라 작업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이번 작품의 가장 큰 차별점은 창작오페라이면서도 기존의 곡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박태현 선생님의 노래가 모티프이지만 선생님이 등장하지 않고 생애를 조명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오페라와 다른 서사적 특징을 가집니다. 잘 알려진 곡뿐 아니라 덜 알려진 곡까지 조명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전 작업에서는 작품의 음악을 제가 전부 새로 작곡해야 했다면, 이번 작품은 유명한 곡을 활용하다 보니 작곡을 시작하기 전에는 창작의 무게를 조금은 덜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작업에 들어가니 이미 존재하는 곡을 어떻게 새롭게 표현할지 오

히려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동요를 오페라에 사용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형식적인 면에서 동요는 짧고 반복적이어서 자칫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박태현 선생님의 원곡을 크게 변형할 수 없었기에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면서 리듬과 화성을 달리해 변화를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동요가 본질적으로 ‘어린이의 노래’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기존의 동요와 새롭게 창작하는 음악을 함께 사용합니다. 두 음악이 어떻게 만나기를 바라셨나요?

이 작품의 중심은 박태현 선생님의 동요이지만, 무대가 단순히 그분의 곡만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제 음악적 언어를 어떻게 드러낼지 고민했습니다. 대본 전반에 걸쳐 선생님의 노래를 자연스럽게 배치하면서 동요풍 가사는 동요적인 선율로, 그 외의 장면은 제 음악적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제가 쓴 곡들이 선생님의 음악을 오마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제 색채를 드러내길 바랐습니다.

연극적 대사가 많은 대본입니다. 대사의 리듬을 음악적으로 풀어내는 레치타티보를 어떻게 표현하실지 궁금합니다.

제 오페라 작곡 철학은 모든 대사에 반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악 없는 대사는 연극적

요소가 강해져 자칫 뮤지컬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노래와 레치타티보를 secco(반주가 단순한 레치타티보)와 아코파냐토 accompnato(오케스트라 반주가 붙은 레치타티보)로 명확하게 구분해 쓰려고 했으나, 작업 과정에서 경계를 허물고 음악적 흐름 속에 통합된 형태로 많이 작곡했습니다. 같은 음을 반복해 말하는 듯한 효과를 주었고, 일부 레치타티보는 박태현 선생님의 동요 반주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작품 속에 바람, 귀뚜라미, 늑대 등 의인화된 캐릭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캐릭터를 음악적으로 어떻게 담아내려 하셨나요?

각 캐릭터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은 도약하는 선율로, 귀뚜라미는 서로 다른 두 종의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채보해 활용했고 늑대는 남성 합창, 새는 여성 합창으로 각각의 이미지를 드러냈습니다.

항정은 작가와는 이번이 세 번째 작업입니다. 앞선 두 작품과 비교해 이번 협업 과정은 어땠나요?

앞선 두 작품보다 시간적 여유는 부족했지만, 그만큼 대본의 전개와 메시지에 대해 더 자주 질문하고 소통하며 작업했습니다. 오페라 작업은 작가와 작곡가 모두에게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세 작품을 원활히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협업이 잘 이루어졌다는 증거겠지요. 작곡가의 입장을 세심히 배려하며 완성도 높은 대본을 써 주셨기에 이번 작품 역시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 울려 퍼진 아이들의 노래 작가 황정은

2018년 서울시극단 정기 공연 창작 대본 공모에 <사막 속의 흰개미>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연극 <애인> <죽음들> <노스체> <베드타운>, 오페라 <사막 속의 흰개미> <레테> 등의 대본을 썼다. 각색한 작품으로는 연극 <햄릿>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이 있다.

작곡가 박태현의 음악을 모티브로 한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전쟁고아 ‘강바람’을 설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태현 선생님의 삶과 동요를 연구하던 중, 그분의 생애가 두 시대를 관통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1907년에 태어나 1993년에 생을 마친 선생님은 청년기와 중년 초기에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광복된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인물이었지요.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은 첫 동요집이 1937년 출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극심하던 시기에 ‘동요’라는 장르로 목소리를 냈던 것이지요. 자료를 살펴보니 아이러니하게도 동요가 가장 활발히 불린 시기는 일제 강점기였고, 더 나아가 동요와 전쟁의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시절을 상징하는 노래가 전쟁 때 더욱 활발하게 울려 퍼졌다는 사실은 놀라움과 씁쓸함을 동시에 안겨 주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지켜 내는 힘은 마음속 ‘동심’이며 누구나 품고 있는 자기만의 ‘동요’가 아닐까 하는 생

각에서, 전쟁고아 ‘강바람’을 주인공으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박태현 선생의 동요를 넘버로 사용합니다. 선곡의 기준은 무엇이었고, 그 노래가 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셨나요?

이번 작품에서 선정한 곡들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동요들입니다. 오페라 속에 박태현 선생님의 동요를 사용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강바람이 동심을 지켜 내며 성장했음이 드러나길 바랐습니다. 극 중 강바람이 부르는 모든 노래는 부모가 불러 주던 노래였을 것입니다. 동요가 힘든 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지켜 주었는지, 나아가 동심이 현재를 버텨 내는 힘이 된다는 의미에 가닿기를 바랐습니다.

우화적인 내용이지만 그 바탕에는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무대에서 어떻게 보이기를 바라시나요?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되, 그것이 극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강바람의 동심과 반짝이는 시선, 그리고 아이다운 순간들이 자신만의 빛을 밝히며 드러나길 원했지요. 어두운 현실은 단지 이 작품의 배경으로만 자리하길 바랐습니다.

작품에 동물이나 바람이 캐릭터로 등장하는 등 판타지와 현실이 섞여 있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했으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길 바라셨나요?

이 작품에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작품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환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강바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곧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는 그 모호한 지점이 강바람의 친구 달이의 존재, 강바람을 지켜 주고 또 강바람이 지켜 주고자 했던 동물들, 나아가 그 주변 공기를 관장하는 바람의 모습 속에 드러나길 바랐습니다.

작곡가 김주원과는 이번이 세 번째 작업입니다. 앞선 두 작품과 비교해 <바람의 노래>에서 극작과 음악의 협업은 어떠셨나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김주원 작곡가와와는 이미 두 작품을 함께한 경험 덕분에 이번 작업에서는 한층 더 안심하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람의 노래>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호흡을 맞춰 본 동료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 실제 소통과 협업 과정에서도 큰 힘이 되었고, 그 힘을 체감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김주원 작곡가가 이번 작업에 함께하기로 결정되었을 때입니다. 또다시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가님은 연극 작업이 주이지만 오페라나 음악극 작업도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연극과 오페라의 글쓰기는 무대에 대한 상상력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야기를 쓴다는 점에서 연극과 오페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오페라는 음악과 함께하는 장르이기에 작가에게 더 많은 상상과 고민을 요구합니다. 연극을 쓸 때에는 여러 요소 중에서도 특히 템포와 속도감을 중시합니다. 반면 오페라를 쓸 때에는 음악이 무대의 공기를 어떻게 감싸고 분위기를 형성하는지 떠올리게 되죠. 그런 상상들이 자연스럽게 작용하면서 이야기의 구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품을 본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 가장 행복할 것 같으신가요?

관객들이 각자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동요, 곧 동심을 잠시라도 꺼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말하는 동요와 동심은 결국 오랫동안 자신 안에 간직해 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 주었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게 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요와 전쟁, 순수와 폭력의 공존 연출가 조은비

한국과 미국의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며 현대적 시각과 창의적 해석으로 오페라 무대를 새롭게 조명하는 연출가다.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에서 동양인 최초로 오페라 연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버지니아 오페라, 신시내티 오페라, 플로리다 주립 오페라, 피츠버그 페스티벌 오페라와 한국의 국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 서울시오페라단 등에서 연출 및 연출부 경력을 쌓았다. 현재 '오페라를보는새로운시선'의 상주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정통 오페라뿐 아니라 창작오페라 작업도 많이 하셨습니다. 창작오페라 작업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창작오페라의 가장 큰 매력은 극본과 음악이 쓰이는 순간부터 함께 호흡하며 창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통 오페라는 대개 작곡가와 극작가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아 작품의 의도를 직접 물을 수 없고, 논문이나 편지 같은 남겨진 자료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창작오페라는 창작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조율하며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상상력과 감각이 교차하며 확장되는 순간을 무대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창작오페라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바람의 노래>는 이전의 작업들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특히 도전적이었나요?

이번 작업은 성남이라는 지역의 문화적 맥락과 박태현 작곡가의 동요를 기억하고 기리는 목적이 더해졌습니다.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기억과 상상, 감정의 건축에 가까운 작업이었지요. 종이 위

에 점 하나를 찍는 일에서 시작해 선을 잇고 구조를 세우고 무너뜨리며 다시 쌓아 가는 창조와 순환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실존 인물의 삶을 위인전처럼 고증하지 않고 작곡가가 남긴 동요의 선율과 가사, 정서와 풍경을 통해 그 삶을 환기하고 관객의 상상 속에서 되살리려 했다는 점이 도전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극을 작곡가 박태현이 남긴 동요의 숨결로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탐색하고 고민했습니다.

작품에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장면이 있나요?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는지요?

모든 장면이 중요하지만, 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현실과 환상이 공존하는 세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 '강바람'의 참혹한 현실과, 그가 꿈꾸는 환상이 경계 없이 이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실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지점에서 나타나는 늑대개의 습격 장면을 전쟁 상황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시각적으로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요와 전쟁' '순수와 폭력' 같은 상반된 정서를 한 무대에서 어떻게 공존시킬지 궁금합니다.

황정은 작가의 집필 의도에서 언급되었듯, 전쟁 중 어린이들에게 동요는 단순히 귀엽고 해맑은 노래가 아니라 참혹한 현실 속에서 동심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생존의 노래였습니다. 작품 속 동요는 단순한 회상이나 장식이 아니라, 현실의 폭력과 순수가 충돌하며 공존하는 지점에 배치됩니다. 무대 위에서는 전쟁의 어둡고 적막한 현실과 아이의 내면이 만들어 낸 환상의 세계, 즉 바람과 새, 동물 친구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겹겹이 펼쳐집니다. 이를 통해 관객은 전쟁과 동심이라는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며, 한 아이가 어떻게 노래로 엄혹한 현실을 견뎌 왔는지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박태현 선생님의 동요가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시나요?

이 작품에서 박태현 선생님의 동요는 단순한 배경 음악이 아니라, 전쟁 속 아이들의 감정과 마음을 담은 '목소리'로 작용합니다. 참혹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자연을 느끼고 그리운 사람을 기다립니다. 동요는 그 시절 어린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과 마음의 언어를 전해 주며, 관객이 그들의 삶을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동요의 참된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할 것입니다.

<바람의 노래>는 대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인데요, 어떤 무대를 상상하고 계신가요?

유다미 무대 디자이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리얼리즘과 시적 상상이 교차하는 무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과 아이의 내면 공간이 동시에 표현되는 입체적이고 다층적 무대를 담아내려 합니다. 아이의 내면 또는 환상 속의 동물과 바람의 형상,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예컨대 동물 사체 속에서 동물들이 살아나는 장면 등을 표현하기 위해 무대, 의상, 특수 효과를 두루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기대되거나 두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대되는 점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창작오페라를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오페라는 가장 복합적인 예술 장르이자 협업의 예술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만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음악과 무대와 연출적 요소가 어우러져 감동적인 장면을 완성하는 과정 자체가 큰 설렘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협업이 가장 두려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대화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함께 해법을 찾는 과정 역시 오페라 작업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황정은 작가, 김주원 작곡가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김덕기 지휘자, 성악가, 배우, 성남시립합창단과 성남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까지 좋은 에너지가 한데 모여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길 기대합니다.



성남시 울동공원에 자리한 작곡가 박태현 노래비

작곡가 박태현을 기억하다

음악을 숙명으로,
예술을 신념으로 살아온 삶

한국 근현대사의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관통하며 작곡가 겸 지휘자, 교육자로 평생 음악의 길을 걸어온 박태현. 음악을 '인생의 전부이자 숙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그의 삶을 기억하는 가족과 작고 후 업적을 정리하고 뜻을 기려 온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 그리고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 제작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연 전문가들에게서 작곡가 박태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본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인터뷰(가나다순)

김성태 박태현기념사업회 회장

김정진 성남문화원 사무국장

민경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명예교수

박용준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

박정아 박태현의 첫째 손녀

장경환 성남예총 음악협회 지부장

Q. 내가 기억하는 작곡가 박태현

김성태 1980년대 초 성남예총의 창립을 준비하던 무렵, 마침 성남에 정착한 선생을 처음 뵈었습니다. 당시엔 성남의 예술인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선생께서 1950년대에 전국예술가총연합회^{현 한국예총}의 창립준비위원이자 초대 사무국장을 지내신 경험이 있어 큰 도움을 받았지요. 성남예총 창립 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생께 ‘성남예술대상’¹⁹⁸⁸을 드리기도 했고, 그 후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꾸준히 교류를 이어 왔습니다.

1999년에 제가 성남예총 회장을 맡으면서 선생의 업적을 정리하고 뜻을 기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당시 성남음악협회 박용준 지부와 함께 ‘박태현 음악상’ 제정, ‘박태현 음악제’^{1999~2008} ‘박태현전국창작동요제’^{2000~현재} 창설을 이루어 냈어요. 2003년부터는 ‘박태현기념사업회’를 발족해, 탄생 100주년 기념 『박태현 노래집』²⁰⁰⁷ 발간, 박태현 노래비 건립²⁰⁰⁸ 등의 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민경찬 한국 근현대 음악 연구자이자 성남시민으로서, 작곡가 박태현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생전에 직접 뵈 적은 없지만, 선생의 음악적 유산에 비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점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누가 잠자나’ ‘산바람 강바람’ ‘코끼리 아저씨’ ‘태극기’ 등 국민 누구나 아는 동요가 선생의 작품임에도, 노래의 명성에 비해 정작 작곡가의 이름은 제대로 기억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박용준 1982년부터 성남음악협회 창립을 준비하면서 선생과 만나 조연도 듣고, 가끔은 막걸릿잔도 기울이며 문화예술계 선배로서 많은 교감을 가졌습니다. 예술인으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참 멋있고 존경스러웠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박정아 할아버지는 언제나 무대 위의 음악가였고, 창작과 지휘를 진심으로 사랑한 예술인이셨습니다. 집에서는 다소 무뚝뚝하고 말씀은 많지 않았지만, 가끔 연주회 준비를 도와드리러 갈 때면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연주자들을 지도하고 무대에 오르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Q. 작곡가 박태현의 업적과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력

김성태 박태현 선생은 음악으로 민족정신을 지켜내고자 했던 선각자였습니다. 독립 운동가였던 둘째 형 박태은 선생의 영향을 받아, 동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우리말과 정신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남긴 선생의 동요는 예술로

이어 온 독립 정신이지요.

예술인들에게서는 탁월한 실력과 남다른 열정을 가진 선배로 존경받으셨습니다. 평생 동요와 가곡 작곡에 매진하셨고, 작고 직전까지도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 크고 작은 공연에서 지휘봉을 놓지 않으셨어요. 60대에 접어들면서는 틈틈이 미술 활동도 병행해 국내외에서 개인 유화전도 개최하셨고요. 또 지역 예술계에는 예총 창립 과정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을 닦고 초석을 놓은 정신적 지주이자 큰 어른으로 깊이 남아 계십니다.

김정진 광복 직후 작곡한 ‘3.1절 노래’와 한국 전쟁 발발 이후 작곡한 ‘한글날 노래’ 같은 국경일 노래 또한 선생이 남긴 중요한 업적 중 하나입니



다. 이 노래들에 담긴 애국정신과 민족의 열은 80여 년의 세월 동안 불리며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해 3월 1일이면 선생의 묘소 앞에서 김성태 회장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님과 박용준 단장이 지휘하는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3.1절 노래’ 헌가식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민경찬 박태현 선생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근현대까지 두 세대를 아우르며 우리 음악사의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 낸 인물입니다. 선생의 업적은 ‘어린이 사랑’ ‘나라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편의 동요집^{1937·1947·1975}과 어린이노래책¹⁹⁴⁷을 펴내 우리말과 노래 보급에 힘쓰셨고, 해방 후에는 이순신, 최영 등 역사 속 영웅들이 쓴 고시조에 곡을 붙여 역사 속에 묻혀 있던 우리 문학을 음악으로 다시 살려 내셨습니다.

또 클래식 교육, 특히 여성 전문 연주자 양성에 애쓰셨어요. 1954년부터 덕성여대, 숙명여대, 한양대 강단에 서셨고, 1966년 한국 최초 전문 여성 실내악단 ‘서울 여성 스트링 오케스트라’^{현 서울아카데미 앙상블}를 창단해 1990년까지 이끄셨습니다. 실내악이 드물던 당시 여성 전문 실내악단의 출현은 국내 클래식 음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요.

박용준 당시 예술의 불모지였던 성남에 예총, 음악협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고 지역 문화예술이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문화재단과 아트센터가 개관하게 된 것도 박태현 선생과 같은 선구자가 계셨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

합니다.

또한 선생의 유작으로 알려진 애항가 ‘나 성남에 살리라’^{1993, 이용상 작사}는 성남을 아끼고 사랑했던 선생의 마음이 담긴 곡으로, 본도심과 신도시를 아우르며 하나 된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데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경환 선생이 남긴 200여 곡의 동요는 우리 음악사에 큰 유산입니다. 이전 세대 어린이들이 배우고 부르던 동요는 우리 세대로, 또 그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순수한 동심과 예술적 감수성을 채우는 정서적 연결고리가 되어 줍니다.

Q.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에 기대하는 점

김성태 지금껏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박태현 선생의 작품과 정신을 소개할 기회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개발과 제작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성남을 대표하는 인물로 작품을 만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꾸준히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김정진 이번 공연이 우리 동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무대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박태현 선생이 가졌던 동요에 대한 애정과 어린이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평생 지켜 내고자 했던 민족정신이 작품 속에 온전히 담겨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민경찬 우리나라 음악가를 소재로 한 첫 오페라이자, 그간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작곡가의 업적을 오페라라는 종합 예술을 통해 새롭게 알리는 작품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이 동요가 박태현의 작품이구나’ 하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박용준 이번 작품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성남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태현 선생의 애국심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정신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박정아 할아버지의 동요들이 재조명되는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동요의 가치가 온전히 지키고, 생전 추구하셨던 음악 세계와 열정이 잘 담긴 공연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동요보다 아이돌 음악을 더 많이 듣고 부르잖아요. 이번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우리 동요의 아름다움을 다시 기억하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경환 박태현 선생의 동요를 통해 오페라의 문턱을 낮추고 세대를 잇는 공감의 무대가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에게는 ‘오페라 음악은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해소하는 공연이, 선생의 동요에 익숙한 7080 세대와 노년층에게는 깊은 정서적 울림을 전하는 공연이 되길 기대합니다.

VIEW

미리보기

오페라 <토스카>

막심 벤게로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신창용 피아노 리사이틀

연극 <빵야>

앙트레 콘서트: 발레 <돈키호테>

2025 성남작가조명전 III 정보영 <그림 속의 그림>

스케치

특별기획전 <BE CHILD - 아이처럼>

인터뷰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벤게로프

P

R

E

V

I

E

W

오페라 <토스카>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던’ 주인공에게 닥친 단 하루의 비극

자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 1858~1924)가 1900년 1월 로마에서 초연한 <토스카>는 그보다 100년 전인 1800년 6월의 어느 날, ‘거룩한 종교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사랑과 질투, 비열한 음모와 살인, 비극적 결말을 다룬 블록버스터급 오페라다. 모든 이야기가 세 주역에 집중되기에 좋은 가수들이 필요하고, 명확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에 요즘 오페라 공연의 트렌드인 레지테아터(Regie-Theater) (원작을 과감히 재해석하는 연출)보다는 충실한 연극적 재현이 우선인 작품이기도 하다. 이번 성남아트센터 무대에서 노블아트오페라단이 선보일 <토스카>는 최고의 출연진, 이탈리아 출신의 실력과 치휘자, 오페라 경험이 풍부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호평받은 젊은 연출가의 해석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글 유형중 음악 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노블아트오페라단



이탈리아의 악보 출판업자 리코르디는 빅토리아 사르두의 프랑스 연극 <라 토스카>¹⁸⁸⁷의 작곡자로 알베르토 프란케티를 낙점하는 듯했다. 이때 끼어든 이가 푸치니였다. 사실 푸치니는 일찍이 리코르디에게 이 연극의 오페라 판권을 확보하라고 권유한 장본인이었지만, 한 차례 포기한 뒤 뒤늦게 다시 욕심을 낸 것이었다. 마침 <라 보엠>으로 대성공한 푸치니가 유명해지자, 리코르디는 작곡자를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속임수를 쓴다. 프란케티에게 “여자인 토스카가 남자를 찔러 죽인다는 설정은 청중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오페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 것이다. 프란케티는 그 말에 작곡을 중단했고, 리코르디는 다음 날 곧바로 푸치니와 계약했다. 약간의 사기극 속에 탄생했지만, <토스카>는 오늘날 대표적 명작으로 평가받는다.

<토스카>의 배경은 1800년 6월 중순의 로마로, 낮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채 하루가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이야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제시한 ‘비극의 삼원칙’ 중 가장 지키기 어렵다는 “24시간 이내에 모든 사건이 완결되어야 한다”를 완벽히 따른 작품이기도 하다. 실화는 아니지만 역사적 배경은 사실에 근거한다. 당시의 유럽은 공화정을 표방한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과 전쟁을 치르던 시기였다.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결과로, 1798년 나폴리 왕국이 통치하던 로마에 공화정이 들어섰다. 곧 나폴리 왕국의 반격에 공화정은 붕괴되고 그 지도자들은 투옥되었다. 그러나 로마 지식인 중에는 공화정 복귀를 꿈꾸는 자들이 생겨났으니, 토스카의 연인 카바라도시도 그런 인물이다. 또 성당으로 숨어든 탈

옥수 안젤로티는 공화정 지도자로 카바라도시와 친분이 있다. 1800년 5월,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향하는 원정을 감행한다. 6월 14일 이탈리아 북부 마렐고에서 나폴리 왕국을 지원하는 오스트리아 대군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오스트리아의 승리로 기울던 전세가 오후 늦게 프랑스 구원군이 도착하면서 역전되어 결국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다.

이 오페라에는 세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로마의 유명 소프라노 가수 토스카, 그녀의 애인인 화가 카바라도시, 그리고 로마 경찰 총감 스카르피아다. 이중 카바라도시는 공화파 지지자, 스카르피아는 비천한 신분에서 남작에 오른 야심가로 둘 다 정치적 인물들이다. 반면 토스카는 신앙심이 깊으면서도 질투가 심한 여인이다. 연인에게 함께 밤을 보내자고 먼저 말할 정도로 적극적 성격이지만 그 대상은 카바라도시 한 사람뿐이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집요함을 보인다. 이는 푸치니가 이전에 그려 낸 <라 보엠>의 미미 같은 연약한 여인상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다. 다음 작품인 <마담 버터플라이>의 초초상과도 다르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도도함과 강인함이 스며 있다. 그러나 이런 여인조차 비극 속에 쓰러져 간다. 사실 푸치니는 토스카를 운명을 이겨 내는 여성으로 그려 보고 싶었다. 그래서 원작자에게 양해를 구하려고 했지만, 사르두는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다. “사랑에 빠진 여인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제 작품의 주인공들을 한번 꼭 보세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토스카가 성



벽에서 몸을 던지는 마지막 장면은 오페라에서도 살아남았다.

오페라로서 <토스카>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연극적 사실성이다. 각 막의 사건들이 지금도 로마에서 잘 보존된 유명 건축물에서 벌어진다. 1막은 성 안드레아 델라 발레 성당, 2막은 파르네세 궁전, 3막은 성 안젤로 성이다. 또한 마렐고 전투의 결과가 처음에는 오스트리아가 승리했다고 잘못 전해졌다가 뒤늦게 승패가 뒤바뀌었다는 오페라 속 내용도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다.

푸치니는 결코 아름다운 선율로 극을 끌여가지 않는다. 아리아는 비교적 짧고 이중창은 길게 이어져 연극적 상황을 연출한다. 특히 2막에서 토스카와 스카르피아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은 도대체 음악인지 연극인지 착각에 빠질 정도로 실감 난다. 푸치니는 관객이 어떤 점에 빠져들 것인지 미리 꿰뚫어 보는 ‘극장 감각’에 능통한 천재였던 것이다.

오페라 <토스카>

일시 11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29일(토) 오후 3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031-783-8000



P R E V I E W

막심 벤게로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원숙한 음악 세계 품고, 강렬한 그가 온다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Classic FM

라는 호칭이 버겁지 않게 느껴진다. 그의 연주를 지켜봤던 애호가들이라면 ‘비르투오소의 대명사’라고 엄지손가락을 드는 막심 벤게로프가 그 주인공이다. 부상을 극복하고 완벽하게 복귀한 벤게로프가 지휘, 원전연주, 비올라 연주 등 지평을 확장해 조망한 드넓은 음악 세계를 성남아트센터 무대에서 펼쳐 보일 예정이다.

글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 DAVID CERATI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태어나 갈리나 투르차니노바^{Galina Turchaninova}와 자카르 브론^{Zakhar Nuhimovich Bron}에게서 배운 벤게로프는 10세 때 폴란드 루블린에서 열린 제3회 리핀스키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 주니어 부문에서 우승하면서 차세대 기대주로 떠올랐다. 스물한 살 때인 1995년, 프로코피예프&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이 영국 그라모폰지의 ‘올해의 음반’과 ‘협주곡 부문 최우

수상’을 수상하며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졌다. 이후 활발히 녹음한 수많은 음반과 따뜻한 면서도 완벽한 기교로 찬사를 받은 공연들이 이어졌다. 시련을 이겨낸 부활의 스토리텔링은 벤게로프를 돋보이게 한다. 2007년 손에 부상을 입고 2008년부터는 지휘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연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다 2011년부터 다시 바이올린 연주 활동을 시작했고, 2014년

폴리시 체임버와 내한해 완벽한 컴백으로 한국 팬들을 감동시켰다. 그의 삶과 음악은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조명되었다. 그래미, 그라모폰, 에코 클래식, 에디슨 클래식, 클래식 브릿 어워즈 등 권위 있는 상을 다수 수상했다. 연주 활동뿐 아니라 후학 양성에도 힘써 온 벤게로프는 2012년에는 런던 왕립음악 아카데미, 2020년에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교수로 취임했다. 온라인 플랫폼 www.maximvengero.com을 통해 전 세계 음악 교육의 접근성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는 재즈와 바로크, 록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고, 비올라 음반을 녹음하는 한편, 양의 창자를 꼬아 만든 거트현을 장착한 바로크 바이올린으로 원전연주에도 도전했다. 한 군데에 머물지 않고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충만한 벤게로프는 1727년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 ‘엑스-크로이처^{ex-Kreutzer}’로 연주한다. 2024/25 시즌부터는 50세 기념 글로벌 투어를 가지면서 카네기홀에서 모차르트와 베토벤 전곡 프로젝트 <Perspectives>를 진행 중이다. 예브게니 키신, 예핌 브론프만, 마르타 아르헤리치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과의 실내악 협연도 포함된 프로젝트다.

더욱 원숙해진 벤게로프가 개관 20주년을 맞는 성남아트센터 무대에 첫선을 보인다. 11월 22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갖는 리사이틀에는 카자흐스탄 출신의 피아니스트 예브게니아 스타르체바가 함께한다. 현재 이튼 칼리지에서 후학을 양성 중인 그녀는 2003년 클래식 브릿



피아니스트 예브게니아 스타르체바

어워즈에서 호흡을 맞춘 후 벤게로프와 자주 협연하고 있다.

이번 리사이틀은 슈베르트 <소나티네, D. 408>로 시작한다. 고전적인 형식미, 그리고 비장감과 쾌적함을 넘나드는 선율미가 듣는 이를 매료시킬 것이다. 이어서 쇼스타코비치 <소나타, Op. 134>에서 완전히 대조적인 고요함과 싸늘함, 절망과 격정의 세계로 안내한다. 2부에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3번을 연주하는 벤게로프는 정열과 서정, 낭만이 함께하는 바이올린 리사이틀의 극치를 노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바이올린 리사이틀 가운데 단연 최고의 무대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막심 벤게로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11월 22일(토) 오후 3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P R E V I E W

신창용 피아노 리사이틀

희망, 음악이 닿아야 할 도착지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는 치열함이 어려 있다. 음악사에도 그 치열한 시간을 통과하며 탄생한 작품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프로코피예프의 작품들은 소비에트 체제 시기에 작곡되었기에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라는 억압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자유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는 명작들이다.

글 국지연 음악 칼럼니스트

음악성과 스타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오는 11월 20일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리사이틀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프로코피예프가 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작곡한 세 곡의 전쟁 소나타^{War Sonatas}와 프렐류드를 통해 폭력과 절망의 시대에도 예술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하고자 한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그린 소나타 6번, 불안과 공포를 담은 소나타 7번, 그리고 전쟁 속



© KOIWORKS

에서도 예술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다움과 희망을 담고 있는 소나타 8번까지, 신창용은 자신만의 다채로운 색채로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이어서 프로코피예프의 실험 정신이 드러난 프렐류드 가운데 격렬한 에너지 속 유머가 돋보이는 7번, 무거운 울림과 웅장함이 특징인 10번을 연주한다.

20세기 음악사를 독창적이고 다채롭게 물들였던 프로코피예프는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당시 음악계의 변화를 이끌었다. 강렬한 리듬과 추진력, 감미로운 선율, 풍자와 유머가 담긴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고 발레, 오페라, 영화음악 등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며 음악의 지평을 넓혔다. 신창용은 2023년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콘체르토 마라톤 프로젝트>에서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전곡(1~3번)을 연주해 ‘프로코피예프에 최적화된 연주자’라는 극찬을 받았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코피예프는 전쟁이라는 극한의 시대를 살면서 인간의 내면과 예술가로서의 저항, 유머, 서정성을 모두 담아낸 작곡가입니다. 전쟁 소나타를 선곡한 것도 그의 음악이 지닌 이중성과 강렬한 에너지를 관객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강한 사운드에 깃든 섬세한 감정과 절망 속에 피어나는 희망을 함께 느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신창용은 힐튼 헤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²⁰¹⁶, 서울 국제 음악 콩쿠르²⁰¹⁷, 지나 박하우어 국제 콩쿠르²⁰¹⁸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했고,

2022년 반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레이먼드 E. 버크 심사위원상을 수상하며 음악성과 스타성을 두루 인정받았다. 협연과 실내악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는 그는 올해 하반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리사이틀과 협연 무대를 이어 갈 예정으로 새 음반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삶과 음악에서 신창용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그는 “진정성과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악보에 충실하면서도 제 해석을 진심으로 담아내는 것, 그리고 화려함과 깊이가 공존하는 무대를 추구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성취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언어를 차곡차곡 빚어 온 그가 이번 무대에서 보여 줄 프로코피예프의 세계는 무엇일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프로코피예프가 건넸던 희망의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라는 그의 말처럼, 희망은 예술이 끝내 닿아야 할 궁극적인 도착지일 것이다.

신창용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11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문의 031-783-8000

P R E V I E W

연극 <빵야>

역사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시선

연극 <빵야>는 '낡은 총 한 자루'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굴곡 많은 우리의 현대사를 굵이 굵이 펼쳐 내는 작품이다. 다양한 극적 장치를 통해 '역사를 관통하는 시선'과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를 섬세하게 담아냄으로써 초연 이후 꾸준한 호평을 받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²⁰²², 한국연극 베스트 7, K-시어터 어워즈 대상²⁰²³ 등을 수상해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글 김주연 연극 평론가 사진 제공 엠비제트컴퍼니



작가 김은성은 우리 역사, 특히 근현대사를 기억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은 극작가이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면서 죄책감과 역사적 부채 의식을 담아낸 <빨>, 반복되는 역사를 반성적으로 보여 준 <뽕뽕뽕>, 한국 근현대사의 가슴 아픈 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무대 위에 재현한 <선샤인의 전사들> 등 그의 대표작 대부분이 근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이나 반복되는 역사를 주제로 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3년 초연된 <빵야> 역시 이러한 작가의 역사의식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낡은 총 한 자루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을 통해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장대한 한국 현대사를 압축적으로 담아낸다.

제목 <빵야>는 극 중 한물간 드라마 작가인 '나나'가 소품 창고에서 발견한 오래된 소총의 이름이다. 1945년 인천 조병창에서 생산된 이 소총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역사의 생생한 현장을 목격해 온 산증인이자 역사 이면에 남겨진 존재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 작품에서 빵야는 무대 위 소품이 아닌 하나의 인물이 되어, 자신이 보고 겪은 파란만장한 역사의 순간들을 나나에게 들려준다. 그렇게 이 작품은 작은 소총이 사람들의 손을 돌고 돌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독립운동, 제주 4.3 사건, 6.25 전쟁과 빨치산 등 한국 근현대사의 가슴 아픈 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동시에 무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식으로 예술의 역할과 가치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세대를 거쳐 나나에



게까지 전해진 '낡은 소총'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역사의 기억이자, 이를 간직하려는 예술의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연출을 맡은 김태형은 빵야를 거쳐 간 인물들을 중심으로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압축적으로 전개하며 170분이라는 러닝타임을 빠른 호흡과 리듬감 있는 구성으로 이끌어 간다. 나나와 빵야를 비롯한 수많은 인물을 다층적으로 소화해 내는 배우들의 연기와 호흡 또한 작품의 매력 중 하나다. 이번 성남 공연에서는 빵야 역에 김지운, 나나 역에 전성민을 비롯해 박동욱, 송상훈, 허영손, 이소희, 장희원, 박수야, 박서후 등 대학로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배우들이 함께해 역사 속 다양한 인물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생동감 있게 그려 낼 예정이다.

연극 <빵야>

일시 11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031-783-8000

P R E V I E W

앙트레 콘서트: 발레 <돈키호테>

춤도 사랑도, 뜨겁지만 유쾌하게

가을 하면 빨간색이다. 스페인의 열정을 머금은 붉은 발레 <돈키호테>가 단풍으로 물들어 가는 성남아트센터를 찾는다. 댄스레 가라앉는 마음을 유쾌한 에너지로 타파하고 싶다면, 플라멩코를 연상시키는 집시 의상에 섬세한 발레 테크닉이 향연을 이루는 희극 발레가 제격이다.

글 윤대성 월간 <댄스포럼> 편집장



© iulphoto

공연예술 입문자를 위한 ‘앙트레 콘서트’ 네 개 프로그램 중 가장 볼거리 많은 공연을 꼽으라면 발레 <돈키호테>다. 스페인 극작가 세르반테스의 위대한 고전에 루드비히 민쿠스의 경쾌한 음악, 프티파-고르스키의 안무를 얹어 ‘3종 선물 세트’로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M발레단 버전의 <돈키호테>는 3막으로 구성된 원작을 2막으로 줄여 속도감을 높였다. 국립발레단 부예술감독으로 8년 활동한 뒤 M발레단을 창단하며 한국 창작 발레의 지평을 넓힌 고 문병남 예술감독이 재안무한 작품이다. 소설과 발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인공이다. 소설은 당연히 돈키호테가 중심이지만, 발레의 주인공은 철부지 커플, 이발사 바질리오와 선술집 딸 키트리야다. 아름다운 키트리야는 자신을 쫓아다니는 귀족을 거절하고 가난한 청년 바질리오를 택한다.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면 좋겠지만, 여느 드라마가 그렇듯 가장 큰 난관은 ‘자식 잘되길 바라는 부모’의 격렬한 반대다. 귀족 가마쉬도 이 철부지 커플이 벌이는 사랑의 도피를 끈질기게 방해하지만, 키트리야의 아버지 로렌조의 반대가 더 막강하다. 집시촌에 숨은 딸을 찾아내서 끝내 ‘딸자 고치는 결혼식’을 치르게 하겠다는 집념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남자 주인공이 아니다. 소설 속 돈키호테는 말했다. “사랑은 전쟁과 같아서 적을 이기기 위한 속임수가 흔쾌히 인정된다”라고. 바질리오는 이를 그대로 실천하듯, 결혼식 당일 이발소 칼을 들고 나와 가

짜로 죽는 척 연기하며 쓰러진다. 이 소동을 본 돈키호테의 중재로 아버지 로렌조를 설득해 결혼 허락을 받아 내면서,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바뀌는 초유의 해피 엔딩이 완성된다.

발레 <돈키호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결혼식 장면이다. 정확하게는 두 연인이 추는 ‘그랑파드되’^{grand pas de deux}다. 남녀 주역 무용수의 고난도 기교가 돋보이는 2인무로, 낭만적인 아다지오로 시작해 남녀 솔로 베리에이션, 경쾌한 코다로 이어진다. 특히 키트리야의 32회전 푸에테^{fouetté}(한쪽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고 다른 쪽 다리를 접었다 폈다 반복하며 회전하는 동작)가 음악과 맞아떨어지는 쾌감을 맛보는 순간, 안무가와 작곡가의 환상적 호흡을 절로 인정하게 된다.

한편 극 중간에 등장하는 ‘돈키호테의 꿈’은 작품 속 춤의 구성을 다채롭게 하는 장치다. 순백의 튀튀를 입은 발레 블랑^{ballet blanc}, 백색 발레은 투우사의 춤이나 플라멩코를 연상시키는 정열적인 춤과 대조를 이루며 정반대의 매력을 선사한다. 특히 이 장면에서는 돈키호테가 키트리야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돌시네아로 착각한 덕에, 여주인공이 1인 2역으로 돌시네아 연기를 하며 색다른 변신을 보여 준다.

앙트레 콘서트: 발레 <돈키호테>

일시 10월 25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031-783-8000

P

R

E

V

I

E

W

2025 성남작가조명전 III
정보영 <그림 속의 그림>

빛과 시간에 담긴 회화의 본질을 묻다

성남큐브미술관은 올해 성남작가조명전의 마지막 전시로 서양화가 정보영의 예술 세계를 조망하는 <그림 속의 그림: The Picture within The Picture>을 선보인다. 정보영은 한국 구상화단에서 주목받는 중견 작가로, 1997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빛과 공간, 시간의 경계를 탐구하며 이를 회화로 구현해 왔다. 지난 30년간 회화라는 매체에 천착해 온 정보영 작가는 17세기 네덜란드 바로크 회화의 조형 요소를 참조·변용해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확립했다. 정보영 작가의 작업에서 미술사는 구시대의 유산이 아니라 창작의 모티프이자 살아 있는 아카이브로 기능한다.

글 박은경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정보영, <A certain view>, 2025, Oil on canvas, 162×227.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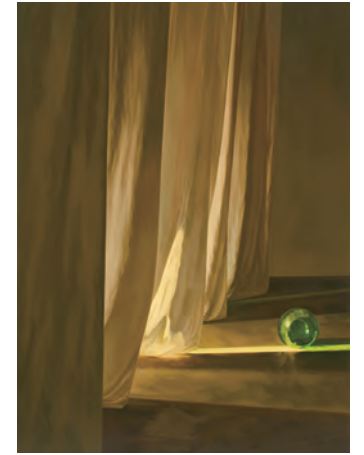
정보영 작가에게 회화의 본질은 ‘빛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화폭에 붓으로 담는 행위’다. 캔버스 앞에서 처음 붓을 든 순간부터 작가는 ‘왜 그리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회화의 조건을 하나씩 되짚으며 본질에 다가갔다. 정보영 작가에게 보는 것은 곧 그리는 것이다. 작가는 마치 물리학자처럼 빛을 응시하고 기록하며 회화에 시간성을 담는다. 회화에 시간성을 도입했던 시도는 미래주의^{futurism}와 입체주의^{cubism}를 거쳐 현대회화

까지 이어지는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다.

미술사에서 회화는 빛을 지배하는 매체였다. 특히 근대 이후의 회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실재’를 시각화하려는 시도를 거듭해 왔다. 바로크 시대의 회화에서도 빛은 다양하게 표현되었고, 인상주의는 빛과 대기를 포착하려 했으며, 세잔은 단순한 정물이 아닌 사물 너머의 본질을, 칸딘스키는 점·선·면을 통해 회화의 정신성을 그려 냈다. 정보영

작가의 작업은 이와 같은 미술사의 맥락 속에서 빛을 통해 시간과 경계를 응시한다.

회화는 3차원의 세계를 캔버스라는 2차원의 평면에 재현^{representation}하는 매체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는 저서 『감각의 논리』에서 “회화의 임무는 보이지 않는 힘을 보이도록 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정보영 작가는 그림 속 공간과 실재의 간극을 보여 줌으로써 캔버스 너머의 세계로 감상자의 시선을 확장한다. 회화는 단순한 재



정보영, <Flowing and Pause>, 2022, Oil on canvas, 182×162cm



정보영, <Looking>, 2020, Oil on canvas (details), 112×162cm

현의 기술을 넘어선 오랜 지적 전통의 산물이다. 정보영 작가의 작품은 바로크 회화의 조형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계승해 동시대 미술 속에서 보기 드문 회화로 평가된다.

디지털 환경 속 끊임없이 이미지가 생산·소비되는 오늘날, 회화의 소명은 현실의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실재의 창조다. 무엇이든 빠르게 변하고 증발하는 시대에 가장 느리고 고전적인 방식으로 밀도 높은 작업을 이어 가는 정보영 작가의 예술 세계를 통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본질적 의미와 그 앞에 선 우리의 존재를 함께 고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2025 성남작가조명전 III 정보영 <그림 속의 그림>

일시 10월 24일(금)~12월 21일(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031-783-8143

턴체 플뢰르 아이처럼 BE CHILD

R

E

V

I

E

W

특별기획전 <BE CHILD - 아이처럼>

내 안의 '내면 아이'를 만나는 시간

때로는 놀이처럼 가볍게, 때로는 깊이 있게 몰입하며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듯, 설명도 규칙도 필요 없는 공간에서 우리는 그저 느끼고, 탐험하고, 존재할 수 있다. 아이처럼 웃고, 놀라고, 마음 깊이 감동받는 순간, 그 무엇보다 진실한 경험이 된다. 네덜란드 그래픽 아티스트 턴체 플뢰르 Teuntje Fleur가 살아 있는 감각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한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사진 최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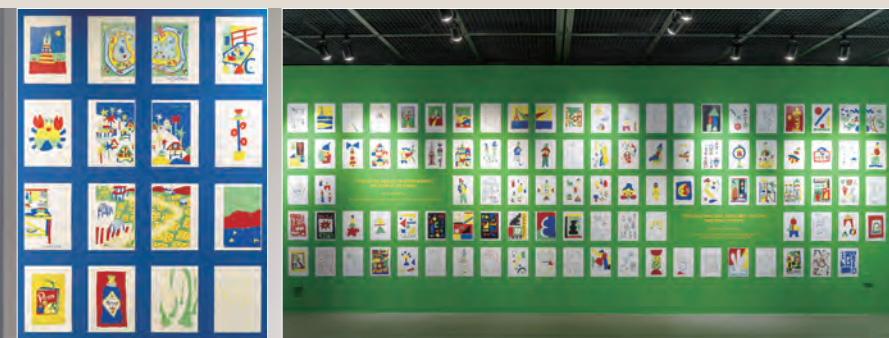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턴체 플뢰르의 개인전 <BE CHILD - 아이처럼>은 단순한 도형과 색감이 주는 시각적 즐거움과 더불어, 내 안의 '내면 아이 inner child'를 다시 만나는 여정이기도 하다. 플뢰르는 아이처럼 밝고 순수한 상상력 뒤에 유년기의 정서적 결핍과 상실, 그리고 그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어른의 삶을 함께 담아낸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작가는 관람객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건넨다. 지금의 나는 어린 시절 꿈꾸던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가? 요즘 무엇에 설레고 무엇에 눈물을 흘리는가? 그리고 내게 가장 안전했던 공간은 어디였고, 그때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전시를 통해 내 안의 '내면 아이'를 마주하며, 우리는 이 물음에 어떤 답을 전할 수 있을까.



#1 영감의 원천 Inspirational Room

폴리르의 작품은 단순한 도형과 원색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상상을 담아낸다. 첫 번째 섹션은 작가의 상상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작품으로 발전하는지 보여 주는 창작 여정의 출발점이다. 100여 점에 달하는 손 스케치를 통해 아이디어의 탄생 과정을 엿보고, 작품의 뿌리를 이루는 원색과 기본 도형에 대한 작가의 탐구 및 시각적 실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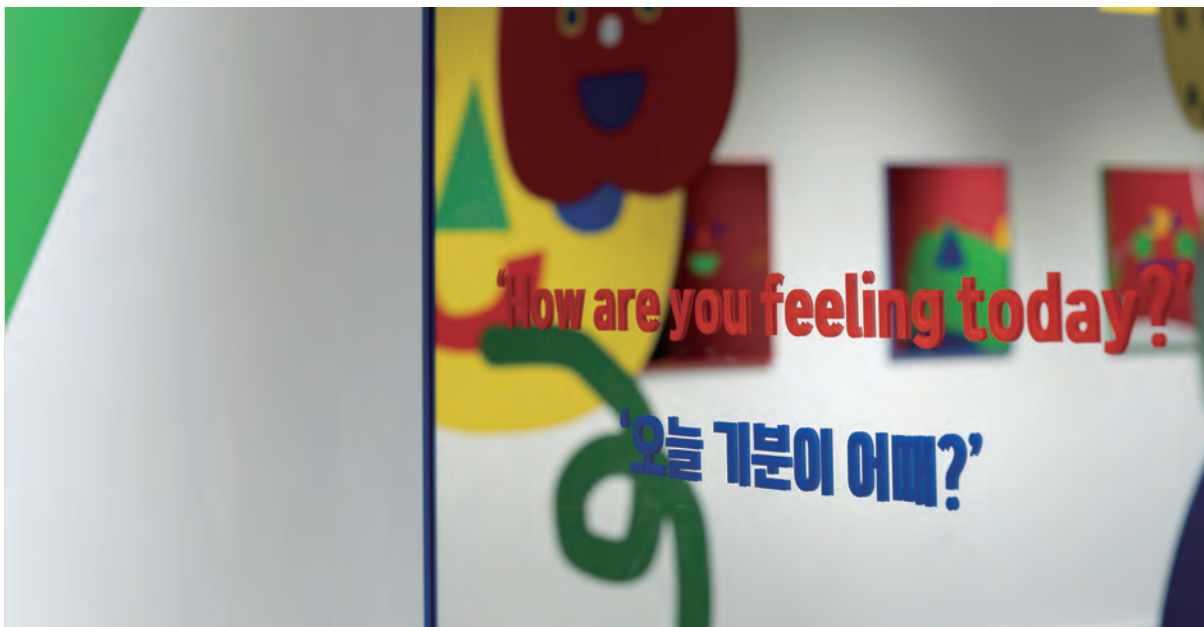
#2 감정의 정원 The Garden of Emotion

두 번째 섹션은 어린 시절 상상의 세계를 거니는 듯, 어른들을 위한 상상의 정원이 펼쳐진다. 평면의 그래픽이 공간 전체로 확장된 감각의 놀이터에서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나만의 속도로 자유롭게 유희할 수 있다. 색과 형태, 리듬과 구조가 어우러진 공간을 직접 걷고, 머물고, 온전히 느끼면서 내 안의 '내면 아이'를 다시 만나 보자.



#3 감각으로 읽는 이야기 Touch. Listen. Imagine

책을 눈으로만 읽는다는 고정 관념은 No! 작가가 직접 만든 이야기와 이미지가 몸속 깊이 스며드는 '감각의 서재'에서 책은 하나의 감각적인 예술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번 전시에서는 <Wees Kind> <10 Years> <The House> 등 탄체 플뢰르의 아트북을 손끝과 발걸음 그리고 귀로 느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에 스며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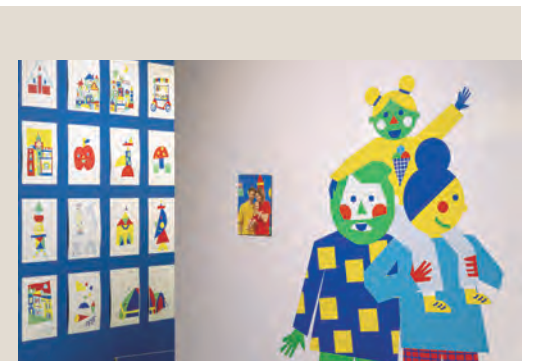
#4 마주 보다, 완성되다 Completed in Your Presence

턴체 플뢰르와 관객의 경험이 조용히 만나는 종착지이자 색과 형태, 움직임과 이야기 등 전시의 모든 감각이 모여 하나가 되는 공간이다. 작가의 그래픽 작품을 심도 있게 감상하며 관객은 감각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그래픽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5 체험존

체험존에서는 그래픽 아트를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작가가 주로 사용하는 원색으로 곰돌이 키링을 채색하거나, 귀여운 도형과 알록달록한 원색 스티커로 티셔츠를 꾸미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기념품이 완성된다.



특별기획전 <BE CHILD - 아이처럼>

일시 8월 8일(금)~10월 26일(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031-783-8000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벤게로프

집중과 몰입, 객석에서 느껴 보라

올여름에도 막심 벤게로프는 각지에서 바쁜 일정을 보냈다. 6월에는 함부르크에서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베토벤 소나타 8번과 10번을, 아르헤리치·마이스키와 하이든 트리오 39번 '집시'를 연주했다. 7월에는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 페스티벌에서 폴리나 오세틴스카야와 브람스 소나타 3번을 야외광장에서 연주하던 중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벤게로프는 끝까지 연주를 이어 가 관객들의 열띤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또한 같은 달,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 바르나바스 켈레메니 설립한 '페스티벌 아카데미 부다페스트 2025'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청되어 콘서트와 마스터클래스를 열었다.

8월에는 스페인 마요르카 페스티벌에서 피아니스트 예브게니아 스타르체바와 함께 슈베르트, 브람스, 쇼스타코비치를 선보였다. 이번 성남아트센터 공연 프로그램과 동일한 레퍼토리이자 파트너다. 11월 성남아트센터 데뷔를 앞두고 벤게로프와 이메일로 만나 보았다.

글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내한 독주회는 1년 반 만이지요. 개관 20주년을 맞는 성남아트센터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 기대가 큼니다.

한국에서 연주할 때마다 행복을 느낍니다. 이번엔 훌륭한 콘서트홀에서 공연하게 돼 기쁘고요. 성남아트센터의 뛰어난 음향과 열정적인 관객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흥미롭고 균형 잡힌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슈베르트 <소나티네, D. 408>,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소나타, Op. 134>, 브람스 소나타 3번을 레퍼토리로 선택한 이유와 해석 방향이 궁금합니다.

콘서트 전반부에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두 작품을 연주합니다. 빈 고전주의 작곡가 슈베르트 소나티네에 이어, 소련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오랜 친구였던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에게 헌정된 쇼스타코비치의 서사적인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작곡가의 후기 작품으로 감상에 깊은 몰입이 필요하지요. 두 악기의 경쟁으로 만들어지는 깊이를 전달하기 위해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는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후반부를 구성하는 브람스 소나타 3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부터 예브게니아 스타르체바와 함께 연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연주할 때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스타르체바와의 연주는 늘 즐겁습니다. 그녀는 독일 자르브뤼켄 호흐슐레 교수로 재직하

던 시절 만난 오랜 파트너죠. 친한 친구이자 훌륭한 협연자이며 환상적인 반주자이기도 하고요. 무대 위에서의 좋은 호흡이 관객들에게도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당신의 우아한 연주를 들으며 한때 스포츠카를 상상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포물러 원^{F1} 레이스에 비유한 글을 읽고 놀랐습니다. 바이올린과 운전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스포츠카를 매우 좋아합니다. F1 드라이버처럼 바이올리니스트도 극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연주가 공연장마다 다르게 들린다는 점도 F1과 비슷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는 항상 소리를 조율하며 공연장 음향과 어우러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탁월한 작품, 두 연주자의 앙상블, 그리고 300년 된 악기의 소리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으니, 관객에게 연주회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섯 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갈리나 투르차니노바와 자카르 브론을 사사하셨습니다. 스승으로서 본인은 어떤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투르차니노바와 브론 교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두 분께 5년 반씩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지요.

투르차니노바는 음악의 위대함을 알려 주고 바이올린을 모국어처럼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악기를 자연스럽게 다루셨고 악기에 대한 사랑을 듬뿍 주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반면 브론 교수님은 엄격하셨고 음악에 대한 견해가 확고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의견은 저나 그분이나 서로 강했기 때문에 가끔은 큰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음악에서 내 의견을 굽히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독일 자르브뤼켄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제자 중 한 명이 한국인이었는데 재능 있는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 자랑스러웠습니다. 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싶어도 연주 일정 때문에 쉽지 않아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며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길로 이끌어 주신 어머니, 그리고 존경하는 스승 로스트로포비치와 바렌보임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무엇인가요?

음악적으로 모든 면에서 영감을 주신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한 음악가이자 합창 지휘자, 성악·피아노 교사셨어요. 17세에 다니엘 바렌보임과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를 만나 협연과 녹음을 하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다행히 바렌보임은 지금도 곁에 계시지만, 안타깝게 로스트로포비치는 우리 곁을 떠나셨죠. 그들과의 추억, 유대감에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윌트 비올라 협주곡 녹음, 트레버 피노크와 함께 원전연주 그리고 지휘까지 다양한 도전을 이어 왔습니다. 이 도전들이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저는 늘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레퍼토리와 다른 표현 방식을 모색하곤 합니다. 20세 무렵부터 바로크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원전연주 실험을 시작했고, 트레버 피노크와 2년간 협업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지요. 그 후 비올라를 연주하며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와 월튼 비올라 협주곡을 녹음했고, 그래미상 수상의 영광도 안았습니다. 그 후 지휘자로도 활동하며 브람스, 차이콥스키, 베토벤, 말러, 브루크너 교향곡을 지휘했습니다. 지휘자가 악보를 보는 방식은 독주자와는 달랐어요. 지휘자로서의 경험은 음악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가져다줬고, 연주자들과 실내악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러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지요. 평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점이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해 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다면요?

젊은 연주자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콩쿠르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협주곡, 소나타 등 모든 레퍼토리를 직접 듣고 서로 비교하며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 사실상 콩쿠르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경쟁’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음악은 스포츠가 아니니까요. 저는 참가자의 기교보다는 연주 그 자체, 음악가로서의 인격과 개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 본질은 음악가의 존재감과 해석, 그리고 성숙도입니다. 콩쿠르는 결국 ‘미래의 음악가’를 평가하는 과

정입니다. 사실 콩쿠르에 참가한 연주자들이 성숙해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주자의 잠재력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심사위원으로서 명심해야 할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바이올린 연주 외에 취미와 관심사가 있는지요?

좋아하는 취미는 많지만 시간이 없어 안타깝지요. 운동은 매일 합니다. 체육관에 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테니스를 치죠. 가끔은 탁구를 치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음악적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현재 중요한 계획은 카네기홀 활동입니다. 3년간 상주음악가로 활동하며 올해 12월에는 브람스 피아노 5중주와 클라리넷 5중주를 연주합니다. 빌데 프랑(바이올린), 제임스 에네스(비올라), 다니엘 뮐러 쇼트(첼로), 예뎀 브론프만(피아노), 앤서니 맥길(클라리넷)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는 영국 바비컨에서 피아니스트 폴리나 오세틴스카야와 독주회를 갖습니다. 2월에는 카네기홀에서 이반 피셔 지휘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합니다. 2026/27 시즌에는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를 비롯해 아시아 및 전 세계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 신기술에도 관심이 많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곧 소식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
2005-2025
SMART 20th Anniversary

성남문화재단
SUNGNAM CULTURAL FOUNDATION

Maxim
Vengerov

2025.11.22. sat
3:00 pm

Violin Recital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2025 성남아트센터

〈막심 벤게로프 & 양인모〉

2025.12.6. sat
3:00 pm

In m
Yang

2025 창제작 프로젝트
바람 불어

별이
뒤를릴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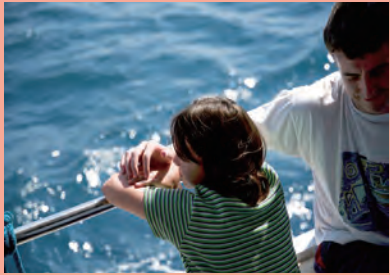
CULTURE +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애프터썬>

트렌드
몰입형 콘텐츠의 시대

2025.10.24 FRI 7:30PM, 25 SAT · 26 SUN 3PM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AFTER



SUN

영화 <애프터썬>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아빠



아빠와 딸이 여행을 간다. 목적지는 튀르키예, 계절은 여름이다. 부녀의 해외여행은 예사로운 일이다. 여행지에선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기도 한다. 예약과 달리 객실 침대가 하나뿐이거나 호텔 공사로 소음이 좀 심하다는 정도가 유별난 일이라고 할까.

<애프터썬>²⁰²³은 큰 사건 사고를 다루는 영화는 아니다. 부녀의 여행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화면에 전한다. 특별하지 않은 내용인 듯하나 보는 내내 마음이 출렁인다. 아빠와 딸이라는, 너무나 흔한 혈연관계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내던 가족 간 사랑이라는 감정을 정밀하게 포착해 낸다.

글 라제기 한국일보 영화 전문기자

1999년 한국일보 입사 후 편집부와 사회부, 국제부 등을 거치며 엔터테인먼트 팀장과 문화부장, 신문에디터로 일했다. 2004년부터 영화를 취재해 왔으며, 영국 서식스대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공부했다. 저서 『질문하는 영화들』, 『말을 거는 영화들』, 역서 『할리우드 전복자들』로 영화를 사랑하는 독자와 소통하는 한편, 뉴스레터 '영화로운'으로 매주 구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열아홉 살 차이 아빠와 딸

아빠 켈럼(폴 메스컬)은 서른 살이고, 딸 소피(프랭키 코리오)는 열한 살이다. 남들이 오빠와 여동생으로 오인할 정도로 나이 차이가 적다. 소피는 엄마와 함께 영국 에든버러에 살고 있고, 켈럼은 런던에서 홀로 산다. 상세히 묘사되지 않으나 켈럼과 소피의 엄마는 결혼하지 않고 딸을 낳은 걸로 보인다. 오래 사랑을 속삭였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서로 사랑할 마음이 없었던 듯도 하다. 어쩌면 소피가 튀르키예 리조트에서 만난 10대 후반 오빠, 언니들처럼 휴양지에서 만나 불장난 같은 하룻밤을 보내고 소피를 잉태했을지 모른다.

아빠와 딸은 자주 못 만난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단둘이서 여행을 가고는 한 듯하다. 소피가 다섯 살 때부터 함께 여행을 했다고 하니 부녀는 튀르키예에서 7번째로 특별한 여름을 맞이한 셈이다.

자주 못 만나서일까, 아빠와 딸은 종종 어긋난다. 아빠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뭐든 말해 주고 싶고, 뭐든 가르쳐 주고 싶다. 어떤 때에는 딸을 성숙한 나이로 보고 또 어떤 때에는 딸을 어린이 취급한다. 딸에게는 아직 버거운 호신술을 가르치다가도, 딸에게 또래 어린이들과 놀라고 종용하기도 한다. 딸은 그런 아버지에게 살짝 실망한다. 딸은 이성애 조금씩 눈을 뜨고 있다. 고전을 읽는 척하며 아빠 몰래 어른용 잡지를 본다. 오빠, 언니들처럼 불량하게 놀고 싶어 하고, 또래 남자애에게 연애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소피는 아빠를 “이틀 후면 131살”이라고 놀리면서도 아빠가 지난해 휴가 때처럼 남들 앞에서 같이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아빠는 “그럴 나이가 지났다”라며 딸에게 화를 내고 자리를 뜬다.



두 사람은 아빠와 딸로 서로에게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았기에 소통에 애를 먹는다.

우울한 아빠, 날로 커 가는 딸

<애프터썬>은 성인이 된 소피의 회고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건 여행 기간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물이다. 화면은 저화질이고 종종 흔들린다. 소통에 서툴지만 순수한 두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 듯하다.

캠코더 영상 속 소피는 아빠에게 아무렇지 않게 묻는다. “열한 살 때 아빠는 지금 뭘 할 거라 생각했어?” 캬럼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진다. 지나치다 싶어질 정도다. 아마 캬럼은 열한 살 때 지금 같은 삶을 상상도 못 했으리라. 어두워진 그의 표정에는 우울함이 깃들여 있다.

영화는 캬럼의 직업도, 경제적 상황도 묘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분투하며 인생을 살아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캬럼은 런던 주변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고 있으며 소피와 함께 살고 싶다고 희망을 간략히 피력한다. 튀르키예까지 딸과 여행을 왔으나 캬럼의 주머니 사정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는 튀르키예 특산물인 카펫을 사려 할 때 주저한다. 리조트에 온 부잣집 청소년은 뭐든 무한대로 주문할 수 있는 플라스틱 팔찌를 차고 있으나 소피의 팔목에는 없다.

캬럼 역시 어른이 되기 전 누구나처럼 원대한 꿈을 꿔왔을 것이다. 스물 문턱에서 소피를 얻으면서 그의 인생 계획은 틀어졌을 것이다. 진학도, 취직도 생각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캬럼은 양육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찌감치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을지 모른다.

어쩌면 소피는 캬럼 인생의 발목을 잡은 존재일지 모른다. 캬럼은 “네가 원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시간은 많으니까”라고 소피에게 말한다.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과 나이인 자기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허리가 꺾이는 삶의 무게를 너무 일찍 접해서일까, 캬럼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듯하다. 그가 여행지에 가지고 온 책 두 권은 명상과 태극권에 대한 내용이다. 캬럼이 병난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 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화난 표정으로 밤바다에 나가 수영을 하고 돌아온 후 오열한다. “같은 하늘 아래 아빠랑 내가 있는 거니까… 그럼 같이 있는 거지”라는 소피의 기특한 말에 미소 짓기는커녕 눈을 감고 서글퍼한다. 캬럼이 열한 살 운운하며 질문을 던진 딸에게 바로 싸늘한 표정을 지은 건 아마 그의 마음에 어둠이 스며 있어서일 거다. 소피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다.

카펫으로 남은 아빠라는 추억

딸은 어른이 되고 아이를 가진 후 생일에 옛 캠코더 영상을 보며 20여 년 전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아빠의 심정을 알게 됐고 그런 아빠를 꼭 안아 주고 싶으나 아빠는 이제 없다.

캬럼은 소피에게 말한다. “아빠한테는 뭐든지 말해도 되는 거 알지. 이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파티에 가든지, 어떤 남자를 만나든, 약을 하더라도… 진심이야, 소피. 아빠도 다 해 본 거니까. 뭐든 얘기해도 괜찮아.” 정작 캬럼은 소피에게 자신의 모든 걸 말하지 못한다. 아니, 할 수 없다. 아빠는 딸 인생의 무게를 덜어 주고 싶지만, 자신이 푹어진 짐 일부라도 딸에게 지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캬럼이 쪽지에 남긴 말에는 이런 마음이 압축돼 담겨 있다. “소피, 이건 정말 잊지 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캬럼은 소피에게 튀르키예에서 산 카펫을 남겼다. 소피는 성인이 된 후 자기 집 침대 아래에 그 카펫을 깔았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카펫을 밟을 때마다 소피는 아빠를 떠올릴 거다. 호텔로 향하는 버스에서 본 튀르키예 휴양 도시의 밤거리, 버스 안에서 아빠 품에 안겼던 순간, 비싼 수경을 잃어버리고 당황했던 모습, 아빠의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 하며 함께 웃음을 터트렸던 때, 또래 남자애와 했던 첫 키스의 달콤한 기억까지, 옛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특히나 자신이 세상에 나온 날,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자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해 준 이에 대한 생각은 더 사무칠 것이다. 같은 하늘 아래 함께하고 있지 않기에 더욱더.

사진 제공 그린나래미디어(주)

살롯 웰스 감독의 <애프터썬>은 11월 19일(수) 오후 2시 미디어홀에서 성남미디어센터 상영작으로 만날 수 있다.

몰입형 콘텐츠의 시대

도시를 삼키는 공감각의 무대

예술 작품과 관객 사이에 존재하던 오랜 계약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는 수동적 관조의 시대를 지나, 신체와 감각 전체로 작품의 세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몰입^{immersion}’의 시대로 진입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 빚어낸 미학적 유행을 넘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깊은 문화적 갈증에 대한 응답이다. 관객은 더 이상 고정된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기만 하는 관람자가 아니라, 공연이 펼쳐지는 공간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극의 일부가 되는 참여자로 변모하고 있다. 이 거대한 전환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렌즈는 바로 ‘공감각^{synesthesia}’이다. 공감각이란 본래 하나의 감각 자극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지칭하지만, 이제는 예술가들이 기술을 통해 의도적으로 감각의 경계를 허물고 총체적 현실을 구축하는 핵심 전략이 되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Sphere}는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감각적 몰입의 극한을 보여 주는 상징적 랜드마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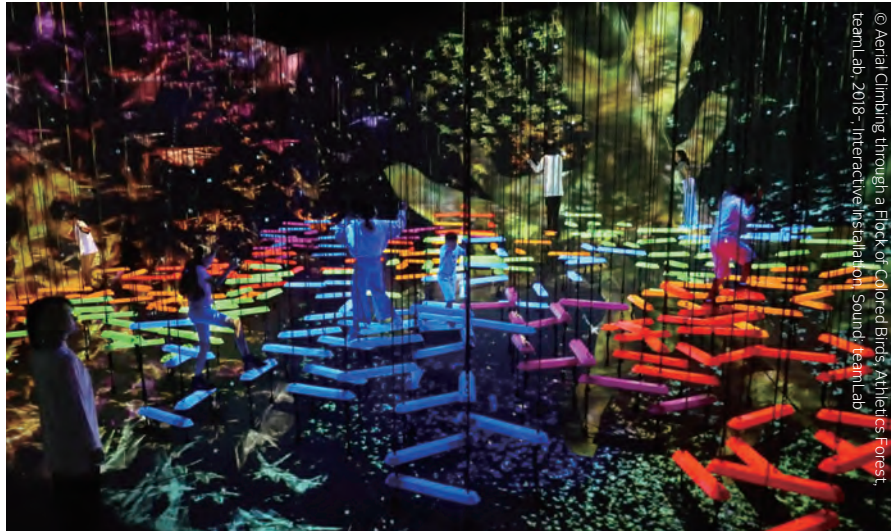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현대인의 감각적 조건이 자리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이라는 평평하고 비물질적인 인터페이스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목적지 사이의 물리적 세계를 무의미하게 ‘건너뛰며^{skip}’ 살아간다. 몰입 예술의 폭발적인 성장은 바로 이러한 스크린 중심의 삶이 야기한 감각적 박탈에 대한 강력한 반작용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의 일상적 상호 작용이 디지털 데이터로 파편화되고 빛나는 사각형 안에 갇힐수록, 인간의 지각 능력 전체를 동원하는 총체적이고 육화된 경험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몰입의 전략을 내세운 새로운 예술은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바로 그 기술이 만들어 낸 감각의 공백을 채우며, 우리를 신체와 감각의 세계로 되돌리는 ‘재감각화^{re-sensualization}’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몰입 위에 펼쳐진 새로운 감각의 생태계

몰입 경험의 최전선에는 외부 세계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기술의 힘으로 온전한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이곳에서 관객의 감각은 예술가가 설계한 법칙에 따라 재구성되며, 현실의 물리적 제약은 잠시 잊힌다. 일본의 팀랩 보더리스^{teamLab Borderless}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Sphere}는 이러한 감각의 요람을 구현하는 가장 상징적인 두 사례일 것이다.

몰입형 콘텐츠의 대명사라고 불리며 살아 숨 쉬는 감각의 생태계라 칭할 수 있는 팀랩 보더리스는 ‘지도 없는 박물관’을 표방한다. 아트 컬렉티브 팀랩^{teamLab}이 창조한 이 공간에서 작품들은 정해진 액자나 구획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나비 떼는 이 방에서 날아올라 복도를 지나 다른 작품 속으로 사라지고, 폭포는 관객의 발밑에서 흘러내려 다른 공간의 꽃들을 피워 낸다. 이처럼 작품들은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고, 관객의 움직임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를 이룬다.

이곳의 철학은 ‘신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라는 개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몸으로 뛰고 움직이며 경험하는 ‘애슬레틱스 포레스트^{Athletics Forest}’는 이러한 철학을 극적으로 구현한 창조적 운동 공간이다. 이는 단순히 눈으로 감상하는 예술을 넘어, 복잡한 3차원 공간 속에서 신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뇌의 해마를 성장시키고 공간 인식 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예술 경험이다. 이곳에서 관객은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이 살아 있는 세계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촉매제다. 즉, 관객의 상호 작용 없이는 작품이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관객은 이곳에서 방황하고, 탐색하며, 타인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주체로 거듭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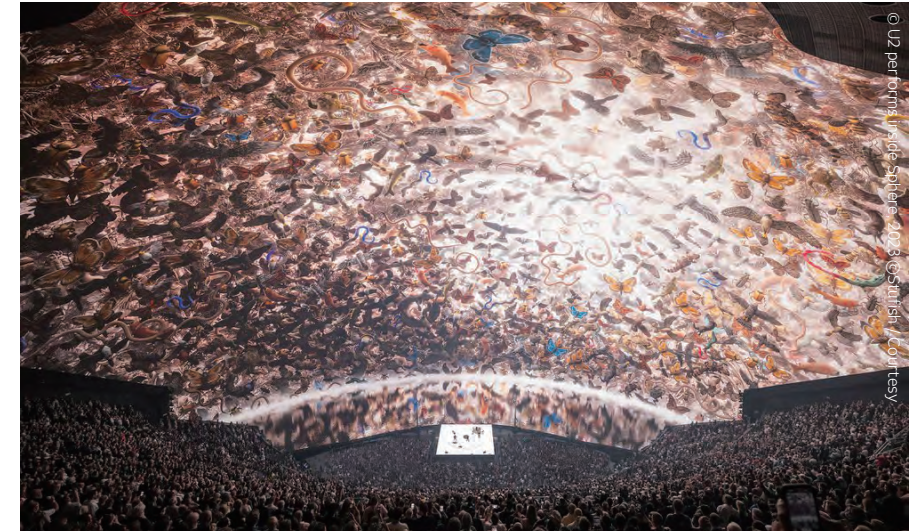


팀랩이 창조한 공간 속 작품들은 서로 경계를 넘나들고, 관객의 움직임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변화하는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를 이룬다

라스베이거스의 스카이라인을 재정의한 스피어는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감각적 몰입의 극한을 보여 준다. 가히 당대 기술적 숭고함의 정점이라 칭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축구장 7개 넓이의 외부 LED 스크린 ‘엑소스피어Exosphere’가 도시의 시선을 사로잡는 동안, 내부에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감각적 실험이 펼쳐진다. 18,600석의 객석을 감싸는 15,000㎡ 넓이의 16K×16K 해상도 스크린은 관객의 시야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지워 버린다.

청각 파트도 남다른데, 독일의 홀로플롯HOLOPLOT이 설계한 3D 오디오 시스템은 ‘빔포밍 beamforming’과 ‘파면 합성 wave field synthesis’ 기술을 통해 소리를 정밀하게 제어한다. 16만 개가 넘는 스피커는 특정 구역, 심지어 개별 좌석의 사운드 제어가 가능해 옆 사람과 완전히 다른 언어의 음향을 듣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개인화된 청각 경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기에 좌석의 진동을 통해 촉각을 자극하는 햅틱 기술과 바람, 향기와 같은 4D 효과가 더해지면서, 스피어는 관객의 모든 감각을 통제하고 재구성하는 ‘감각의 대성당’으로 완성된다. 이곳에서 관객은 이야기를 듣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 시공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팀랩 보더리스와 스피어, 두 공간이자 콘텐츠는 관객을 완벽한 몰입의 세계로 이끈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방식과 철학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팀랩 보더리스가 관



2023년 스피어의 공식 개장과 함께 열린 록밴드 U2 콘서트

객에게 탐험하고, 상호 작용하며, 자신만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끌어내도록pull’ 유도하는 생태계를 제공한다면, 스피어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제어된 감각 데이터를 관객에게 일방적으로 ‘밀어 넣어push’ 전달하는 거대한 송신 장치에 가깝다. 팀랩 보더리스의 관객이 높은 자유도를 가진 ‘탐험가’라면, 스피어의 관객은 최상의 감각적 경험을 수용하는 ‘수신자’가 된다. 이는 몰입형 예술이 지향하는 두 가지 방향, 즉 관객을 공동 창작자로 격상시키는 길과 감각 통제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길 사이의 핵심적인 긴장을 보여 준다.

도시와 자연으로 확장하는 공감각의 무대

한편 몰입의 무대는 이제 미술관과 공연장의 벽을 넘어 도시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 도시의 건축물, 역사적 유산,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 예술의 캔버스이자 무대가 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공간은 새로운 감각적 경험의 장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흐름은 기술이 도시의 표면을 장식하는 것을 넘어, 도시가 품고 있는 고유한 역사며 생태와 깊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미디어 아트 축제인 서울라이트SEOUL LIGHT의 진화는 도시 스케일의 몰입 경험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보여 준다. 초기 서울라이트가 자하 하디드 Dame Zaha

Hadid의 미래적인 건축물 DDP의 비정형 외벽을 거대한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미디어 파사드에 집중했다면, 2025년 여름 시즌의 서울라이트는 DDP를 둘러싼 공원 전체와 서울 권역으로 무대를 확장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 새로운 시도의 핵심은 '투과 가능한 무대(permeable stage)'의 창조다. 작품은 더 이상 DDP라는 단일 표면에 투사되는 이미지가 아니라, 역사적인 한양도성 성곽과 새롭게 조성된 수*공간,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레이저와 자욱한 안개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환경으로 변모했다. 관객은 고정된 위치에서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리로 채워진 공원을 거닐며 작품 '속'을 통과한다. 미래적인 빛의 파편이 수백 년 된 성곽의 돌 틈으로 스며들고, 물과 안개가 공간의 경계를 흐리는 경험 속에서 관객은 시공간이 융합되는 공감각적 산책을 하게 된다.

또한 공감각적 무대의 급진적인 형태를 2025 성남페스티벌의 <시네 포레스트: 동화(動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분당 중앙공원의 울창한 숲 전체를 살아 숨 쉬는 하나의 거대한 야외극장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시도다. 여기서 스크린은 인공적인 구조물이 아닌, 나무와 나뭇잎, 지형의 불규칙하고 유기적인 표면 그 자체다.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통해 빛이 나뭇잎 하나하나에 맺힐 때, 숲은 '꽃처럼 피어나는(動花) 거대한 생명체'가 된다. 이 작품이 제안하는 '미디어 심포니'라는 새로운 형식은 공감각적 융합의 정점을 보여준다. 70인조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1,000명 시민 합창단의 목소리, AI와 작곡가가 협업해 만든 새로운 교향곡, 그리고 숲 자체가 만들어 내는 소리(바람 소리, 벌레 소



서울시의 미디어아트 축제인 서울라이트에서는 새로 조성된 수*공간에서 포그와 레이저로 이루어진 'RHYTHM IN FOG'를 선보인다

리, 물소리)가 하나의 다층적인 사운드스케이프로 결합한다. 관객은 단순히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밤공기 속에서 시각과 청각과 환경적 감각이 완벽하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총체적 경험에 잠기게 된다. 총감독 이진준^{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과 연출진이 목표로 하는 '확장된 공감(augmented empathy)'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는 도시 브랜딩을 위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던 초기 미디어 아트 축제의 목적을 넘어, 기술을 매개로 장소의 고유한 시학(poetics)을 발견하고 증강하려는 성숙한 예술적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계 너머, 존재하는 예술

우리는 스피어의 기술적으로 완벽한 자궁과 틱택의 살아 있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출발해, 서울라이트의 역사적 도시 구조와 <시네 포레스트: 동화>의 자연 세계로 확장되는 공감각의 무대까지 아우르는 여정을 마쳤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예술의 존재 방식과 그것이 우리에게 남기는 유산에 대한 어떤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예술은 이제 전통적으로 추구했던 '재현(representation)'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술 그 자체의 '표현(expression)'과 '형식(form)'에 집중했고, 이제는 관객이 직접 거주할 세계를 '구축(world-building)'하고 '시뮬레이션(simulation)'하는 방식으로 존재 양식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관객에게 남기는 것은 상징에 대한 지적 해석이 아닌, 몸에 깊이 새겨진 '육화된 기억(embodied memory)'이다. 발밑에서 느껴지던 모래의 감촉, 시야를 가득 채웠던 16K 해상도의 경이로움, 시뮬레이션된 위험이 안겨 준 서늘함, 숲속에서 울려 퍼지던 1,000명의 목소리가 만들어 낸 공동체적 울림... 이 기억들은 머리가 아닌 몸이 간직한다.

공감각적 무대의 궁극적인 지향은 예술과 관객 사이의 경계를 넘어, 예술적 경험과 삶 자체의 경계를 허무는 데 있다. 이 몰입의 세계는 우리 안에 감각적 잔여물을 남겨 우리의 지각을 재조정하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풍요롭게 한다. 도시는 더 이상 단순한 건물의 집합이 아니며, 숲은 그저 나무들의 군집이 아니다. 그것들은 이제 마법과 기억이 깃들 수 있는 잠재적 캔버스가 되었다. 예술은 마침내 액자에서 탈출했고, 이제 진정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 존재한다.

글 **허대찬** | 미디어문화예술채널 앨리스온 디렉터

미디어 아트 및 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큐레이터, 교육자로서 국내 미디어 아트 활동의 순환 및 아카이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미디어문화예술채널 앨리스온 ^{aliceon.co.kr} 편집장²⁰¹⁹, 게임 연구 집단 더플레이 대표, 한국디자인사학회의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N DER SCHÖNEN BLAUEN DONAU

아름다운 도나우

10.16 영원한 방랑자, 슈베르트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김광현,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슈베르트 '도플갱어' / '죽음과 소녀' / '자옥에서 온 무리들'
<로자문데> D. 797 중 제5곡 간주곡 3번
'동결' / '까마귀' / '마왕' / 교향곡 8번 B단조 '미완성'

11.20 낭만적인, 너무나 낭만적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최수열, 바이올린 유다운

말러 교향곡 5번 중 아다지에도
코른골트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 35
슈베르트 교향곡 3번 D장조 D. 200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11시 콘서트를 (2025년 3월~12월, 총10회)



성남문화재단

SEONGNAM+

성남의 예술가
시각예술가 한광우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
성남아트센터, 20년의 기록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10·11월의 큐레이션
프로그램 가이드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성남아트센터 공간 탐구생활
온새미길

시각예술가 한광우

모두의 참여, 예술이 되다

전통적인 시각예술에서 작품은 작가에 의해 완성된다. 관객참여미술은 관객과의 상호 작용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한광우 작가는 관객의 참여를 통해 전시가 공연예술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실험한다. 지난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에서 개인전 <사색의 운동회-상징물의 재탄생>을 진행한 작가를 만나 새로운 실험의 의도와 성과를 들었다.

글 김문영 객원기자 사진 최재우

반갑습니다. 전시 <사색의 운동회-상징물의 재탄생>으로 관객을 만나고 계신데요, 소감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시 개막을 기다렸어요. 미술 작품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다 하자는 생각으로 준비한 전시입니다. 전시에 오시는 분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싶었어요.

어떤 전시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색의 운동회-상징물의 재탄생>은 관객이 전시 공간에 놓인 오브제^{object}를 활용해 신체 활동을 수행하며 작품을 완성하는 전시입니다. ‘운동회’라는 제목이 의미하듯 놀이를 통한 몸의 감각 느끼기, 사색하기를 안내합니다. 관객은 수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작품에 참여하고 작품의 의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이고 각각 어떤 기능을 하나요?

전시는 참여 규칙, 참여를 위한 오브제, 관객의 세 요소로 구성됩니다. 모든 게임과 놀이에 규칙이 있듯 <사색의 운동회-상징물의 재탄생>에도 작가의 의도가 담긴 참여 규칙이 있어요. 관객의 신체 행위를 유도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진정한 사색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를 위한 오브제는 전시 공간에 놓인 사물들이에요. 10점의 오브제로 이



번 전시를 구성했는데 주로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상징을 재구성한 것들이에요. 이것들만으로 전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에 작품이라고 부르는 대신 오브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객은 참여 규칙과 오브제를 통해 움직이면서 작품을 시각적으로 완성하고 의미를 빚어내는 요소이자 주체가 됩니다. 저는 세 요소의 조합으로 인해 이 전시가 하나의 공연예술처럼 보이기를 바랐고 처음으로 무용가를 초대해 그 가능성을 실험했어요.

신체 활동이 매개하는 감각과 사유

이번 전시는 2022년부터 이어 온 <사색의 운동회> 연작의 새 시리즈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작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조각 전공자인데 이탈리아에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2020년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인간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모르는 사람과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잖아요. 당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접촉이 금기시되던 때이기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혼자서 달리기 시작하고 집 뒷산을 자주 오르면서 내 몸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신체 활동으로 인한 감각이 그냥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 활동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되어 <사색의 운동회>를 기획했습니다. 제가 설치미술을 하다 보니 시각, 즉 눈으로

받아들이지는 감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 시리즈에서는 저와 관객 모두 시각과 이성에 사로잡히는 경향을 극복하고 신체와 감각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기존 연작과 다르게 시도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이전 시리즈보다 오브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객이 신체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오브제 자체가 설치미술 작품으로 감상의 대상이 되고 관객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2022년에 영은미술관에서 개최한 전시는 참여 규칙을 강조하다 보니 오브제 자체는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이번에는 오브제의 재료, 형태, 색채 같은 것들을 깊이 고민했고 다양한 표현을 시도했습니다. 오브제가 표현하는 내용은 치열한 현실을 담고 있고 잔혹하기도 한데 색채를 보면 굉장히 알록달록해요. 내용과 대비되는 역설적 표현이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시각예술이 아닌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마치 공연 같은 전시, 전시 같은 공연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브제에 담은 의도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현대미술을 설명하고 평가할 때 고전미술과의 단절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탈리아에 있는 동안 그곳의 전통적 요소들, 신화나 종교의 상징을 많이 접했고 예술적 영감을 받았어요. 그 전통적 상징물

을 제가 추구하는 현대미술로 가져와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한 것이 이 전시의 시작점입니다. 예를 들어, ‘에케 호모 Ecce Homo’라는 제목의 오브제가 있어요. 에케 호모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문구로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짚으로 만들고 관객이 바늘로 찌를 수 있도록 했어요. 인간이 타인을 제물화하는 상징인데,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 인형을 바늘로 찌르는 주술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고 문화권을 초월하는 공통된 의식,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를 놀이로 구현했습니다.

그러한 놀이 활동을 통해 관객의 어떤 사유를 유도하고자 하셨나요?

‘에케 호모’의 상징은 인간의 본성을 성찰하고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찌르는 행위로 드러나는 공격성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하게 되지요. 저는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와 스스로 구원자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통한다고 봤어요. 좀 더 넓게 보면 축제(carnival)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전시는 일종의 놀이로 가득한 세상인데 타인을 향한 공격과 치열한 경쟁의 세계이면서 반성, 속죄, 화합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크게 다가올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현재의 이야기를 전하는 동시대 예술

전통적 상징, 고전미술의 요소를 현대로 끌어오신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시도하실 때의 주안점은 무엇이었나요?



관객은 작가가 의도한 규칙에 따라 농구, 탁구, 줄다리기와 같은 놀이를 통해 몸의 감각을 느끼고 행위의 의미를 사색한다

전통을 가져오는 시도 자체보다는 전통 요소가 현재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했어요. 동시대 미술은 결국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의 이슈를 이야기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 인간과 물질을 대하는 태도, 자연과의 관계 같은 것들을 사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스도교의 상징을 통해 절대자의 이야기를 더했지요. 절대자는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오늘날 대중문화 속의 우상으로도 존재해요. 절대자를 숭배하고 맹신하는 모습, 시스템 안에서의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는 우리를 성찰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무용가와 협업을 시도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작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 중 하나는 대형화이고, 규모가 강조되면서 다른 예술 장르와 결합해 관객에게 새로운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술가가 다른 분야의 예술가와 협업하는 것이 필수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번 전시는 관객의 체험과 사색을 의도한 만큼 새로운 감각적 요소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싶었어요. 관객이 흥미를 갖고 작품에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풍부한 사유를 유도한다는 의도였지요. 공연예술 확장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무용가 김래혁, 사운드 디자이너 김영일 같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래혁 무

용가에게는 오브제들을 활용한 안무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움직임들을 다채롭게 구현해 주셨어요. 이번 전시는 성남문화재단의 '2025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 공모지원'에 선정되어 진행할 수 있었고 재단 사업 담당자님의 소개로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전시 준비 중 가장 까다롭거나 고민스러웠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오브제 작업을 할 때 스케치한 형태대로 구현하기 힘든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막 자유롭게 상상하고 스케치했는데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거나 재료 문제가 있거나 했습니다. 전문 기술자, 공동 창작자들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그림을 보여 드리면 만들 수 없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느 정도 수정하고 변경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고집을 부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 기획자로서의 예술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25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 공모지원' 사업에 참여하셨어요. 예술가에게 성남문화재단과 일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2023년에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관객참여 미술 전시를 열었고 올해 다시 선정되어 연작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은 작품을 보존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어서 성남문화재단처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면 실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원하는 작품과 전시를 할 수 있다



신화와 종교의 상징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된 오브제들



각 오브제의 기획 의도와 놀이 규칙을 담은 스케치

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이 작업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받는 듯해서 용기가 생겼고 큰 힘이 됐습니다.

관객참여미술을 어떤 방향으로 이어 가고 싶으신가요?

관객참여미술은 꽤 오래전에 시작된 장르고, 이제 관객이 작품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는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르 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저만의 길을 찾는 중이에요. 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객의 신체를 통해 감상한다는 것인데 이 지점에서 공연예술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전시의 세 요소인 참여 규칙,

오브제, 관객으로 말하자면 관객은 신체를 사용하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될 수 있어요. 전통무용, 현대무용, 발레, 탭댄스 같은 장르의 무용가 혹은 서커스 단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오브제는 3D 프린팅, 인공지능 로봇 같은 신기술이나 신소재를 활용한다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조합하고 융합해서 관객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기획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조각가라고 하면 보통은 장인^{匠人}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저는 시각예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무엇인냐는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성남아트센터, 20년의 기록

2020-2024

찬란히 빛나던 순간들

2005년 10월 14일,
성남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세계 속의 문화도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성남아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도시 곳곳에 문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해
함께 걸어온 그간의 발자취,
알차고 풍요로웠던, 아름다운 예술의 기록들을
2025년 한 해 동안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2024 성남아트센터 역대 주요 공연·전시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을 맞아,
역대 주요 공연과 전시를
소개합니다

2020-2024 HIGHLIGHTS

2020

- 에릭 요한슨 사진전 <Impossible is Possible> 1.2~3.29
- 마티네 콘서트 '베토벤' 5~8월(온라인 생중계), 10월~12월 7회
- 동시대 미감전 <명랑미술관> 5.22~10.18
-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11.13
- 정경화 & 김선옥 듀오 리사이틀 12.20
- 오페라정원 <피가로의 결혼> 7.11 | <세비야의 이발사> 8.8 | <가면무도회> 9.12 | <로미오와 줄리엣> 12.12

2021

- 마티네 콘서트 '프랑스로부터' 3월~12월 10회
- 동시대 이슈전 <판타지> 4.9~6.27
-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기념전 <Future is Now> 7.23~8.22
- 경기필하모닉, 세이코 김 & 클라라 주미 강 11.9
- 조수미 & 이 무지치 12.23
- 오페라정원 <사랑의 묘약> 6.12 | <가면무도회> 9.11 | <돈 조반나> 10.9 | <삼손과 데릴라> 12.11

2022

- 마티네 콘서트 '영국으로부터' 3월~12월 10회
- 동시대 미감전 <식물 키우기> 5.27~7.3
- 오페라 <시칠리아섬의 저녁 기도> 6.18~6.19
-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10.3
- 성남의 얼굴전 <위로> 10.28~11.27
- 영국현대미술의 거장전 <Two Seasons> 12.23~2023.3.19
- 오페라 <라 보엠> 12.9~12.10
- 스트라스부르 국립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2.16

2023

- 필립 자루스키 & 앙상블 아르타세르세 3.5
- 마티네 콘서트 '이탈리아로부터' 3월~12월 10회
- 동시대 이슈전 <헬로! 펫, 또 하나의 가족> 4.7~6.25
- 조성진 & 발트 앙상블 6.25
- 오페라 <나비부인> 10.12~10.15
- 손민수, 윌슨 웅 &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11.25
- 특별기획전 <매그넘 인 파리> 12.15~2024.3.24

2024

- 마티네 콘서트 <보헤미아의 숲과 들> 3월~12월 10회
- 동시대 미감전 <지구를 위한 소네트> 4.19~6.9
- 성남문화재단x영국왕립예술대학 <도시를 다시 상상하다> 7.8~8.4
- 힙합 댄스 시어터 <블랙독 BLKDOG> 6.22~6.23
-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 8.23~8.25
- 마티아스 피르네 & 마리아 조앙 피레스 10.26
- 이자벨 위페르의 <메리 스튜어트 Mary Said What She Said> 11.1~11.2
-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콜드 블러드 Cold Blood> 12.13~12.14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다

에릭 요한슨 사진전 <Impossible is Possible> | 1.2~3.29 ↗

한국과 스웨덴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스웨덴을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의 특별전이 열렸다. 에릭 요한슨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었을 법한 세계를 사진 예술로 구현하는 작가로, 단순히 디지털 기반의 합성 사진이 아니라 작품의 모든 요소를 직접 촬영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세계를 한 장의 사진 속에 담아낸다. 풍부한 상상력과 세심한 표현으로 사진 그 이상의 환상의 세계를 펼쳐 냈다.

언택트 시대, 예술의 방향을 묻다

동시대 이슈전 <판타지> | 4.9~6.27 ↗

2021 동시대 이슈전은 팬데믹 시대에 일상이 된 '비대면'을 주제로, 가상과 실재가 혼재된 우리의 삶을 7명의 작가가 회화, 설치, 영상 등 각기 다른 예술적 시선으로 담아낸 전시다. 디지털 기술로 대체된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무엇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현장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관객에게 어떤 심미적 경험과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작가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50년 전의 오늘을 만나다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기념전
<Future is Now> | 7.23~8.22 ↗

성남시 역사의 출발점이 된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을 기념한 <Future is Now> 전시는 성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돌아보는 자리였다. 전시에는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태현·임흥순 작가와 가천대 출신의 젊은 작가 그룹인 신흥사진관이 참여했다. 50년 전 그날을 직접 겪은 세대와 기록으로만 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통해, 민권운동의 의미가 오늘의 언어로 되살아났다.

2020

텅 빈 객석을 채우는 위로의 음악

마티네 콘서트 <베토벤> | 5~8월(온라인 생중계),
10~12월(현장 공연) ↗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 선 2020년, 자가 격리와 집합 금지, 객석 띄어 앉기 등으로 정상적인 공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연주자들은 무대를 지켰다. 비록 객석은 텅 비었지만, 온라인으로 관객과 연결되었고 음악으로 서로의 마음을 위로했다. 마티네 콘서트도 몇 차례 공연 취소와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가 이어졌다. 대면 공연이 다시 열린 날, 마스크를 쓰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환호 없는 박수는 그 어느 공연보다 뜨겁게 기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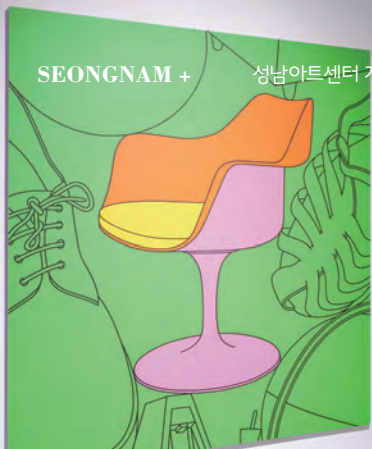
세대를 뛰어넘는 완벽한 호흡

정경화 & 김선욱 듀오 리사이틀 | 12.20 ↗

'우리 시대의 전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김선욱, 한국 클래식계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하는 두 연주자가 한 무대에 섰다. 낭만파 실내악의 거장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1~3번)을 담은 이 공연에서 두 사람은 40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세대와 개성을 아우르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 줬다.

2021





SEONGNAM +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

이토록 멋진 만남

영국현대미술의 거장전 <Two Seasons> | 12.23~2023.3.19 ↑

개념미술 작가 마이클 크래이그 마틴과 70대에 빛을 보기 시작한 화가 로즈 와일리, 영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두 예술가의 이야기를 세계 최초로 한자리에서 펼쳐 낸 특별 기획전이다. 두 거장의 작품 세계를 통해 예술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소개하고 예술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로 사랑받았다.



2022



Two Seasons
ROSE WYLIE · MICHAEL CRAIG-MARTIN

프랑스적 색채와 독일적 기능미

스트라스부르 국립오페스트라 내한공연 | 12.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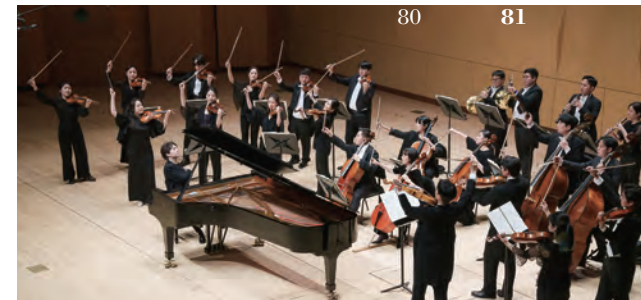
1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페스트라는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특성상 두 나라의 전통과 색채를 균형 있게 아우르는 연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악단과 클래식계의 떠오르는 젊은 지휘자 아지즈 쇼하키모프, 프랑스 신예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칸토로프의 만남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천사의 목소리, 악마의 기교

필립 자루스키 & 앙상블 아르타세르세 | 3.5 ↑

2014년 첫 내한 연주회 이후 9년 만에 한국을 찾은 카운터테너 필립 자루스키는 탁월한 악곡 해석과 가사 표현력으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카운터테너로서의 진면목을 보여 주었다. 자신이 직접 창단한 앙상블 아르타세르세, 소프라노 에피케 버라트와 함께 그리스 신화의 음유 시인 '오르페우스'를 주제로 한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이며 연주와 연기, 연출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무대로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완벽한 존재감

조성진 & 발트 앙상블 | 6.25 ↑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발트 앙상블의 공연은 주연과 조연을 오가며 전체를 조율하는 조성진의 탁월함과 발트 앙상블의 빼어난 호연이 어우러진 무대였다. 특히 2020년, 2022년 솔로 리사이틀로 성남아트센터를 찾았던 조성진은 이 공연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9번과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하며 '한 공연 두 협주곡'으로 한층 무르익은 음악적 역량과 색다른 연주 매력을 선보였다.

2023

미래의 우주로 간 <나비부인>

오페라 <나비부인> | 10.12~10.15 ⇄

새로운 무대예술의 아이콘 정구호 연출과 함께 제작한 오페라 <나비부인>은 기존 오페라의 제국주의적 요소, 근대적 인물 관계의 한계를 벗어나 시대와 공간을 먼 미래의 우주로 확장한 새로운 해석과 연출이 돋보였다. 작품의 본질인 인간에 관한 이야기와 사랑의 영원불변한 메시지, 푸치니의 감동적인 음악은 그대로 지킴, 이야기 구조와 무대 구성, 의상과 인물의 등장 방식에 SF적 상상력을 더해 기존과는 또 다른 매력의 <나비부인>을 완성했다.





기억하고 상상하고 함께하기

성남문화재단×영국왕립예술대학 <도시를 다시 상상하다> | 7.8~8.4 ↗

우리가 사는 도시, 혹은 꿈꾸는 도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남문화재단과 영국 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의 공동 기획 프로젝트 <도시를 다시 상상하다>는 6세 어린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오늘의 성남을 살아가는 98명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상상을 특별한 예술 작품으로 빚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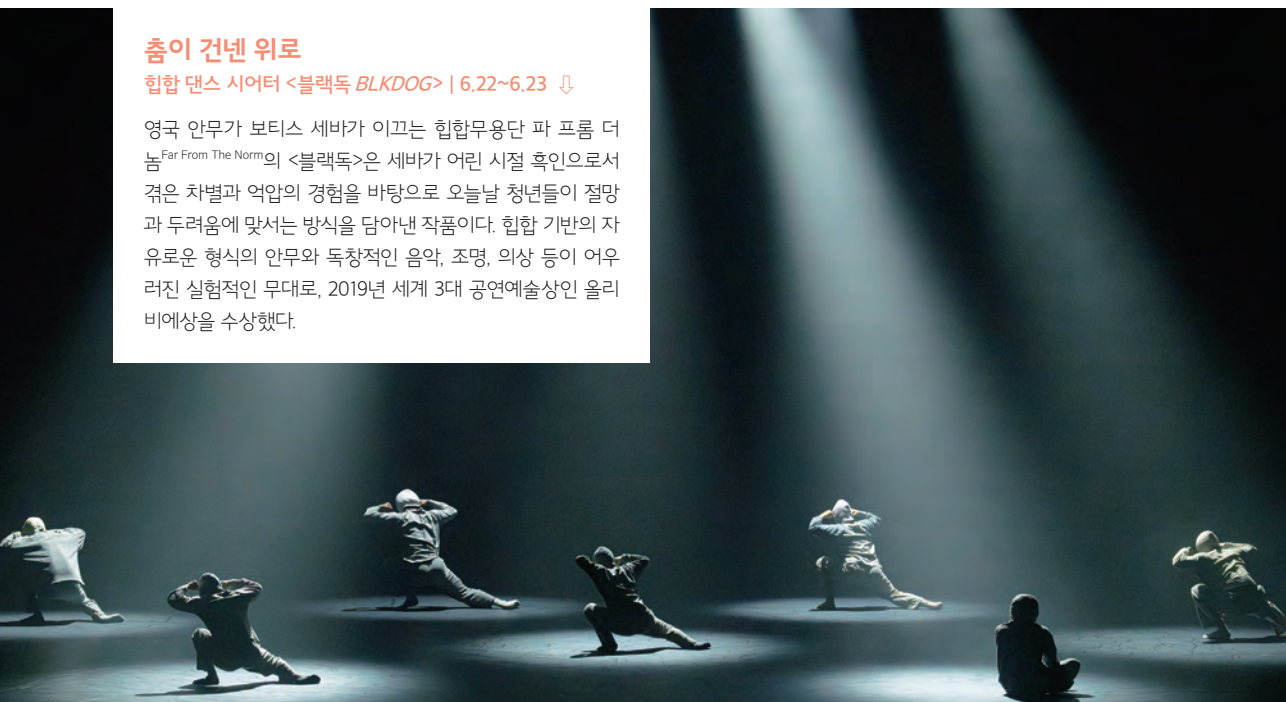
2024



춤이 건넌 위로

힙합 댄스 시어터 <블랙독 BLKDOG> | 6.22~6.23 ↘

영국 안무가 보티스 세바가 이끄는 힙합무용단 파 프롬 더 노름(Far From The Norm)의 <블랙독>은 세바가 어린 시절 흑인으로서는 겪은 차별과 억압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청년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맞서는 방식을 담아낸 작품이다. 힙합 기반의 자유로운 형식의 안무와 독창적인 음악, 조명, 의상 등이 어우러진 실험적인 무대로, 2019년 세계 3대 공연예술상인 올리비에상을 수상했다.



두 거장이 함께한 나그네길

마티아스 괴르네 & 마리아 조앙 피레스 | 10.26 ↗

독일 가곡 해석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2005년 성남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과 2015년 성남아트센터 10주년 기념 공연에 이어 오랜만에 성남 무대를 다시 찾았다. 슈베르트 가곡의 걸작이자 괴르네의 대표 레퍼토리로 손꼽히는 연가곡 <겨울 나그네>를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반주와 함께 한층 깊이 있는 무대로 완성했다.

모노드라마, 그 이상의 무대

이자벨 위페르의 <메리 스튜어트 Mary Said What She Said> | 11.1~11.2 ↘

로버트 윌슨 연출, 이사벨 위페르 주연의 연극 <메리 스튜어트>가 한국 초연했다.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여왕 메리의 운명과 시대적 진실을 독백으로 다룬 1인극으로, '칸의 여왕' 이사벨 위페르의 압도적 연기와 '극예술의 거장' 로버트 윌슨의 우아하고 절제된 연출 감각이 관객들에게 깊고 선명하게 각인된 무대였다.



손가락 춤에 담은 삶, 사람, 사랑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콜드 블러드 Cold Blood> | 12.13~12.14 ⇄ ↘

세계적인 영화감독 자코 반 도마엘이 이끄는 벨기에의 창작 집단 '키스 앤드 크라이'가 무용, 연극, 영화, 문학이 결합한 새로운 차원의 총체극을 선보였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손가락들이 펼쳐는 서정적인 춤과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여 주는 독특한 형식의 공연이다. 정교한 미니언처 세트에서 섬세하게 재현된 이미지들을 통해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7가지 기억을 다채롭고 생생한 감각으로 무대 위에 펼쳐 냈다.



SEONGNAM ARTS CENTER MONTHLY GUIDE

Calendar

Map

Programs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 2025년 10·11월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2025.10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2	3	4	5	
◎ 오페라하우스 ◎ 콘서트홀 ⑤ 앙상블시어터 ④ 성남아트리움 ⑩ 미디어홀 ■ 성남문화재단 기획		◎늘푸른초등학교 가을음악회(19:00) ⑥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충전 <심향 온향>(19:00) ■ ⑩무료 정기 상영 <라이어>(14:00)	◎성남정자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00)	⑥연극 <그리프봇>(15:00)	⑥연극 <사의찬미>(14:00, 18:00) ⑥재즈 읽어 주는 남자II: 우리가 알던 재즈(19:00)		
6		7	8	9	10	11	
						⑥가족 뮤지컬 <에그 박사-해적 보물섬의 비밀>(11:00, 14:00, 16:30) ◎강남대학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19:30)	⑥가족 뮤지컬 <에그 박사-해적 보물섬의 비밀>(11:00, 14:00, 16:30) ◎경기교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5:00) ⑥바흐 듀오 리사이틀(16:00)
13		14	15	16	17	18	
		⑥황인정&Li Tzu-Chin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19:30)	■ ⑩무료 정기 상영 <신데렐라>(14:00)	■ ⑥마티네 콘서트(11:00) ⑥정세문의 그리운 언덕에 부는 멋진 콘서트(19:30)	◎분당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30) ⑥제27회 성남창작무용제(19:30)	◎뮤지컬 <멤피스>(14:00, 19:00) ◎그레이트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19:00) ⑥한이 수교 140주년 기념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의 밤>(19:00) ④제2회 피아노 솔리스트 축제(18:00)	◎뮤지컬 <멤피스>(14:00, 19:00) ◎2025 성남음악협회 가을음악회(19:30)
20		21	22	23	24	25	
			◎간또리안 앙상블 정기연주회(19:30) ■ ⑩무료 정기 상영 <파우스트>(14:00)	◎아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00)	◎콰이어가이스트 정기연주회(19:30) ■ ⑥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19:30)	■ ⑥앙트레 콘서트: 발레 <돈키호테> (14:00, 18:00) ◎쿤스트 페스티벌 <클래식 오디세이>(15:00) ■ ⑥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15:00) ■ ④최상철현대무용단 <ChaosII> & <그들의 논쟁>(15:00)	◎쿤스트 페스티벌 <클래식 오디세이>(15:00) ■ ⑥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15:00)
27		28	29	30	31		
		◎분당 벨칸토 여성합창단 & 분당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19:30)	⑥판교청춘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30) ■ ⑩무료 정기 상영 <아마데우스>(14:00)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사랑음악회(19:30) ⑥수정노인종합복지관 로사리오합창단 정기공연(19:30)	◎성남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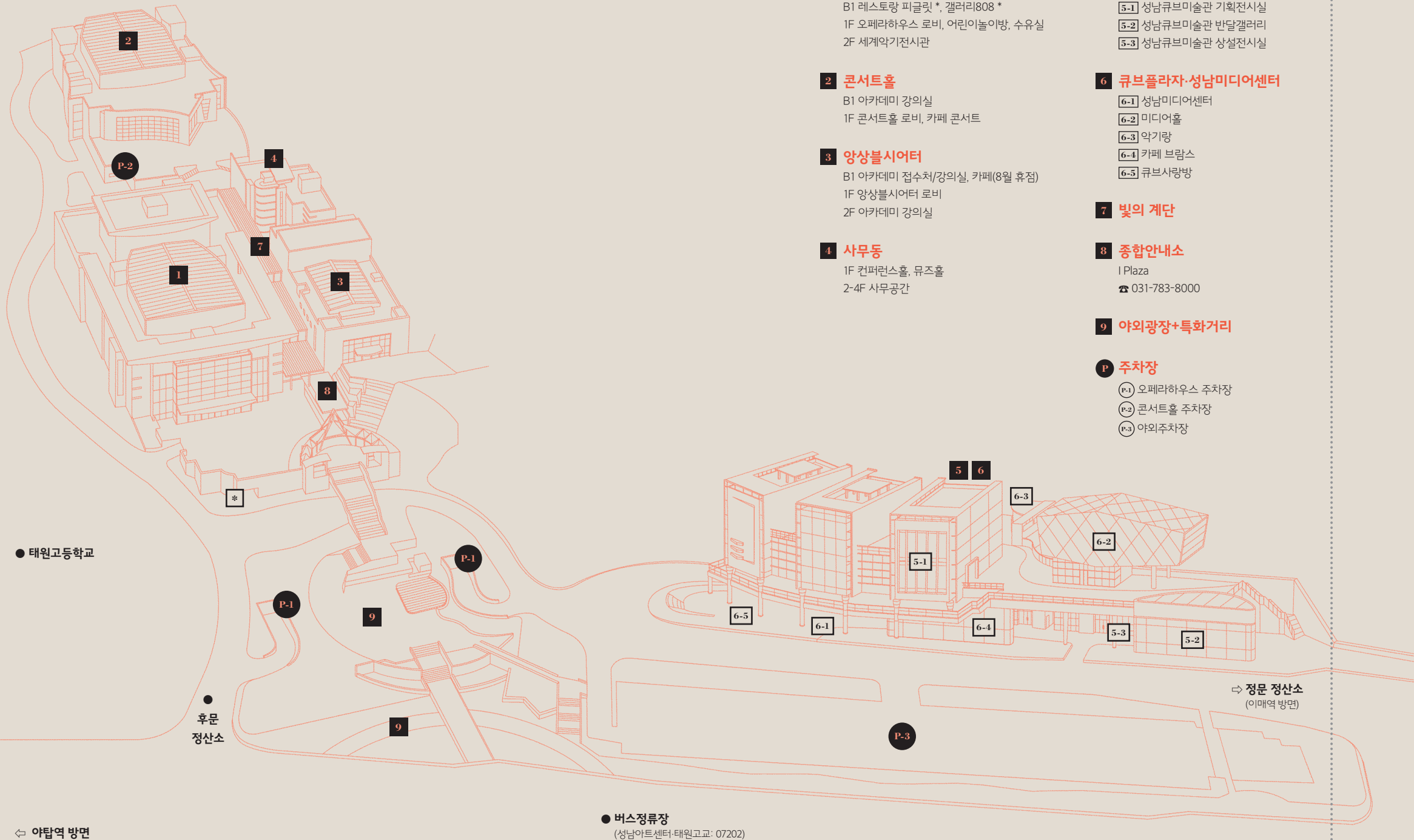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 2025 특별기획전 <BE CHILD-아이처럼>	8월 8일~10월 26일	기획전시실
■ 2025 성남작가조명전 III <정보영: 그림 속의 그림>	10월 24일~12월 21일	반달갤러리
■ 2025 소장품 주제기획전 II <시대의 취향>	10월 24일~12월 21일	상설전시실

* 전시 관람 시간 10:00-18:00(월요일 휴관)

갤러리808	
제14회 남한산성의 꿈과 희망전	9월 27일 ~ 10월 10일
제15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전	10월 17일 ~ 10월 24일
제14회 한국수채화 공모대전	10월 28일 ~ 11월 8일
제26회 대한민국문인화대전	11월 11일 ~ 11월 19일
제17회 성남위터아트전	11월 22일 ~ 11월 29일
평화(PEACE)	11월 22일 ~ 11월 29일

* 전시 관람 시간 10:00-18:00(월요일 휴관)

성남아트센터 공간 안내



1 오페라하우스

B1 레스토랑 피글릿 *, 갤러리808 *
1F 오페라하우스 로비, 어린이놀이방, 수유실
2F 세계악기전시관

2 콘서트홀

B1 아카데미 강의실
1F 콘서트홀 로비, 카페 콘서트

3 앙상블시어터

B1 아카데미 접수처/강의실, 카페(8월 휴점)
1F 앙상블시어터 로비
2F 아카데미 강의실

4 사무동

1F 컨퍼런스홀, 뮤즈홀
2-4F 사무공간

5 성남큐브미술관

5-1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5-2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5-3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6 큐브플라자·성남미디어센터

6-1 성남미디어센터
6-2 미디어홀
6-3 악기랑
6-4 카페 브람스
6-5 큐브사랑방

7 빛의 계단

8 종합안내소

I Plaza
☎ 031-783-8000

9 야외광장+특화거리

P 주차장

P-1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P-2 콘서트홀 주차장
P-3 야외주차장

⇒ 정문 정산소
(이매역 방면)

● 버스정류장
(성남아트센터·태원고교: 07202)

↩ 야탑역 방면



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현대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가 앙상블시어터 무대에 오른다. 히말라야 트레킹 중 사고를 당한 준호, 회사에서 공지에 몰린 진석, 하반신 마비가 된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 등 각기 다른 위기와 아픔을 겪는 인물들이 '노인'이라는 상징적 존재를 통해 서로를 보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별처럼 삶의 아픔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노인' 역은 중견 배우 김명국이 맡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들이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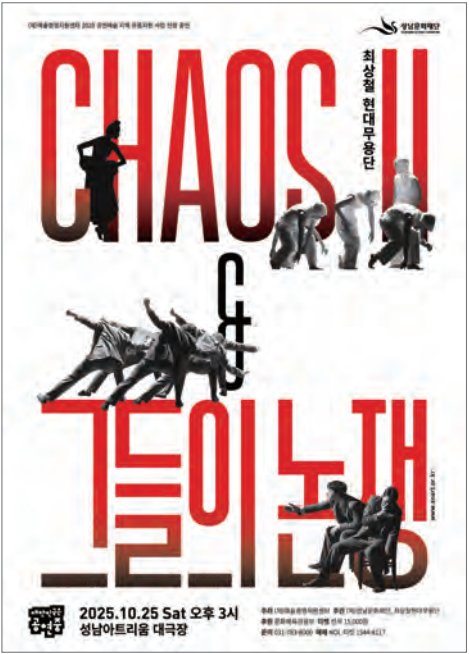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일시 10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25일(토)·26일(일) 오후 3시
티켓 전석 20,000원
문의 031-783-8000



마티네 콘서트 10월

2025년 마티네 콘서트는 클래식 음악의 심장,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음악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10월의 마티네 콘서트는 '영원한 방랑자, 슈베르트'를 테마로 슈베르트의 가곡과 교향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가곡 '마왕' '까마귀' '죽음과 소녀' 등을 세계적인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의 깊고 풍성한 저음으로, 교향곡 8번 '미완성'을 지휘자 김광현이 이끄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10월 16일(목) 오전 11시
티켓 전석 25,000원
문의 031-783-8000



최상철현대무용단 <CHAOS II> <그들의 논쟁>

한국적 현대무용을 선보이는 최상철현대무용단의 대표작을 더블빌 공연으로 만나는 기회! <CHAOS II>는 한국 전통춤과 스트리트 댄스의 대비 속에서 혼돈과 질서, 대립과 화해의 경계를 탐색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무대를 빚어낸다. <그들의 논쟁>은 의사소통의 부재에서 비롯한 갈등과 오해를 남성 무용수들의 다이내믹하고 격렬한 에너지로 풀어내며 인간 소통 방식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10월 25일(토) 오후 3시
티켓 전석 15,000원
문의 031-783-8000



뮤직페스타

성남 본도심에서 즐기는 또 하나의 음악 축제 '뮤직페스타'에서는 7080세대를 대표하는 발라드 황제 변진섭과 발라드부터 트로트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실력파 보컬리스트 린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가을밤에 어울리는 깊이 있는 감성과 탁월한 가창력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진한 감동을 느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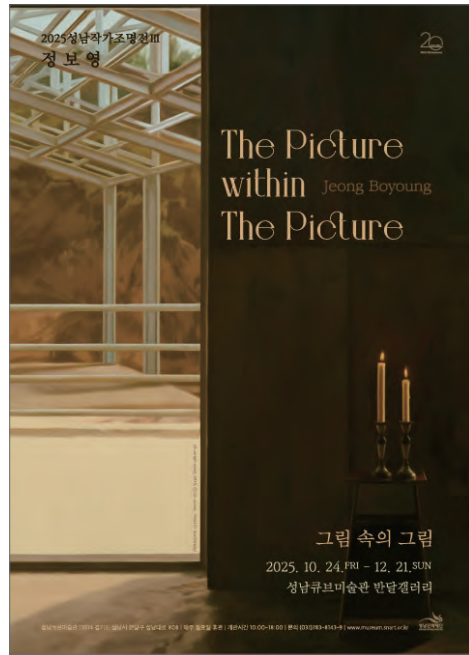
장소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일시 10월 18일(토) 오후 7시
티켓 전석 무료
문의 031-783-8000



패밀리 콘서트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가족 콘서트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가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시리즈와 영화 <사랑의 하츠픽>에서 사랑 받은 OST부터 차이콥스키, 슈트라우스 등 우리에게 익숙한 클래식 음악을 함께 만나 볼 수 있는 오케스트라 콘서트다. 대형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애니메이션 장면과 김성진 지휘자가 이끄는 디토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 뮤지컬 배우들의 춤과 노래가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11월 30일(일) 오후 3시, 5시 30분
티켓 R석 50,000원, S석 30,000원
문의 031-783-8000



2025 성남작가조명전III

정보영 <그림 속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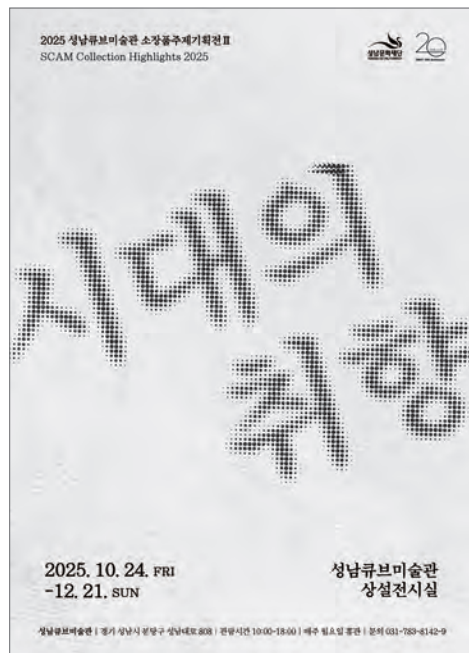
올해 세 번째 성남작가조명전 <그림 속의 그림>은 빛과 공간, 시간의 경계를 탐구하며 그 안에 드러나는 감각적 구조를 회화로 구현하는 정보영의 예술 세계를 조망한다. 섬세한 명암의 흐름과 현실을 재구성하는 장면들 속에 캔버스 너머의 현실과 환영, 존재와 부재 사이에서 흔들리는 경계를 조용히 생각해 보게 한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10월 24일(금)~12월 21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3~9



2025 소장품주제기획전II <시대의 취향>

성남큐브미술관이 수집한 소장품을 엄선해 하나의 주제로 엮어 선보이는 소장품주제기획전이 올해 두 번째 전시로 <시대의 취향>을 선보인다. 개인의 기호를 넘어 시대가 만들어 낸 공통의 가치와 문화적 경향을 반영하는 '취향'을 주제로, 일상의 소소한 장면부터 사회적 이슈와 문제의식을 드러낸 작품들을 소개한다. 김호민·이현배·이상엽 등 동시대 작가들이 각자의 시대적 감각과 예술적 시각으로 포착하고 시각화한 회화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일시 10월 24일(금)~12월 21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Tosca

G. Puccini

오페라 <토스카>

2025.11.28 Fri 7:30pm — 29 Sat 3pm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관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아트센터의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온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이노엘 대표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서창우/석남연 한국파파존스(주) 회장 / 동양연우보험대리점 대표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손일선/김상일 태평염전 회장 / 태평염전 사장
안봉혁/어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산성이엔지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워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회장

철쭉회원

김부경/김모민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김상한/오다영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박동순/강송희 아람휴비스(주) CEO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우문식/조남숙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상우/강지선 (주)인베이드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이서규/황해숙 (주)팍셀플러스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꼬모아트웍션 이사

탄천회원

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박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육자 전 (주)씨너스 회장

철쭉회원

강정완/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교육주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 (주)예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복기 전 한국문화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회
김연태/이주숙 (주)비스타글로벌 대표
김영수/원종순 전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김중현/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전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전 농협중앙회 이매동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궁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박미경/강대식 증권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배지영/윤영민 로즈피부와 분당점 원장 / 로즈피부와 청담점 원장
백중훈/지용애 한국디지털콘트롤(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서정림 전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손의명/손외자 치과의사 / 한국화가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오종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유성희/유성은 (주)인흥 대표이사 /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연옥/조상수 성남정자초등학교 교사 / 낙원중학교 교장

이경화/이정우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이윤이 (주)한솔교육 대표이사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삼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인선/채인호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교수 /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
임현주/김윤선 AMK
장세영/김준식 한화엔엑스엔디 대표이사 / 잡코리아 CTO

장형환/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 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승설 성남FM방송국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악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前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신한라이프 명예부사장
조남주/이규칠 미술단체(銀과 色) 前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최병오/박종길 패션그룹형지 회장
최은희/연형모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탁순희 前 대교 이사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희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홍애자 수필가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영일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미라 21세기 미금의원 원장
윤향남 화가
전동욱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부사장
주재근 정효문화재단 대표

까지회원

김상수 (주)UBE모터스 고문
김성민 운 중농원갈비 대표
김용태 하팅코리아(주) 대표이사
목영애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사)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

백성정 (사)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오미주 성악가
우주호 (주)리크루즈 여행 대표이사
이기영 (주)한솔교육 대표이사
이윤이 HCS 대표
정희재 지휘자
조현우 변호사
최진욱

명예회원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신선희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무대미술가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강효주 부회장 황광석, 김상일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최은희, 신상진, 윤영상
감사 김길복, 김문기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이메일 mecenat@snart.or.k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가입 안내 바로가기



온새미길

도시 속 작은 숲길, 자연 속 예술을 거닐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4층 사무실. 적막을 깨고 창밖에서 들리는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 ‘어, 어째서? 여긴 4층인데?’ 하는 두려움을 안고 창문을 열어 바깥을 확인하니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 고라니?! 성남아트센터의 숨은 꿀자리를 소개하는 코너! 도심 속 숲에서 즐기는 여유와 함께 가끔은 자연 그대로의 고라니도 만날 수 있는(?) 산책로 ‘온새미길’을 소개합니다.

글 강준구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사진 최재우



도시와 자연이 잘 어우러진 성남! 성남아트센터 역시 중원구와 분당구에 걸쳐 있는 영장산^{414.1m}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지요. 온새미길은 오페라하우스 광장 오른쪽에 있는 고객센터 아이플라자 앞에서 시작해 아트센터 뒤편으로 크게 한 바퀴 둘러 걸을 수 있는 산책로이자, 매지봉^{275.1m}을 거쳐 영장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의 일부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나무 사이사이로 보이는 색다른 모습의 성남아트센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새미길은 사계절이 모두 다른 매력으로 채워집니다. 봄에는 벚꽃, 철쭉 등 예쁜 꽃을 즐길 수 있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대나무 숲과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기와 담벼락이 우리를 반겨 줍니다. 특히 10~11월 단풍철에는 빨강과 노랑으로 물든 아트센터의 전경을 즐기면서 바삭바삭 낙엽을 밟으며 더 즐겁게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눈 쌓인 겨울의 온새미길은 나름대로의 운치가 있지만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제일! 면발치에서 눈으로만 즐겨 주세요!

온새미길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어스름한 저녁에도 선선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다만 필자처럼 너무 늦은 밤에 걸으면 깊은 숲에서 고라니가 불쑥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온새미길 가는 길 성남아트센터 아이플라자 방면, 콘서트홀 주차장 방면

성남아트센터 2026년도 정기대관 공고



오페라하우스

세계적 수준의 무대시설을 갖춘 1,808석 규모의 다목적 복합 공연장,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종합구성물을 비롯, 클래식 콘서트까지 모든 공연예술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다. 기본 잔향을 1.6초부터 3초까지 조정, 객석에서 최적의 음향을 감상할 수 있다.



콘서트홀

클래식 오케스트라 콘서트 등 순수음악 공연을 위한 1,102석 규모의 공연장, 그랜드 피아노 형상의 아름다운 외관, 쾌적하고 안락한 감상이 가능하도록 무대막이 없는 아레나형 무대가 특징이다



앙상블시어터

연극, 리사이틀, 실험적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예술을 담아낼 수 있는 378석의 복합 공연장, 객석으로 돌출하는 T자형 무대장치, 주무대의 회전 장치 등으로 무대와 청중이 함께 호흡하는 관객친화적 연출이 가능하다.

대관시설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 콘서트홀은 클래식 콘서트 전용홀로 종합구성물의 공연은 대관하지 않음
- 관객을 위한 공연물이 아닌 일반 행사는 대관하지 않음

대관기간

2026. 1. 1. ~ 12. 31.

- 대관가능일: 성남아트센터 온라인 대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성남문화재단 자체 기획 공연(공동기획공연 포함) 및 성남시 주최행사, 성남시립 예술단 공연, 무대 점검기간은 대관 기간에서 제외
- 콘서트홀의 경우 아래 기간은 일반 대관 신청 지양
 - 성남미래 음악주간: 2026. 9. 8. ~ 9. 23.

- ※ 매주 월요일 휴관
- ※ 내부사정에 따라 대관가능일은 변경될 수 있음
- ※ 1개월 이상의 장기공연의 경우 별도 문의

문의

- rental@snart.or.kr
- 오페라하우스 031-783-8042
- 콘서트홀 031-783-8047
- 앙상블시어터 031-783-8049

신청 안내

접수 기간: 2025. 9. 18.(목) ~ 10. 13.(월)
접수 방법: 성남아트센터 대관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www.snart.or.kr/rental>)
※ 이메일, 방문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온라인 대관신청서(소정 양식) 1부
- 공연계획서(공연 참고자료, 홍보 영상물 혹은 사진 등) 자유양식 1부
- 출연자(또는 단체) 계약서 혹은 증빙자료 사본 1부
- 출연자(또는 단체) 및 공연 주최사 약력 1부
- 사업자등록증 혹은 대표자의 프로필 사본 1부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